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⑨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배푸는 입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법구경〉

## 법회 안내

**삼천사** 359-7766
초하루 법회 매월 1일(음)
지장기도일 매월 18일(음)
부부가족법회 매월 1·3주 일
특별기도일 매월 16일(음)
청년법회 매월 1·3주 일

**청룡사** 763-4031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성주암** 877-7180
거사림법회 매주 일 새벽 6시
천수경 강의 매월 1·3주 일
지장경 강의 매월 2·4주 일
청년법회 매월 1·3주 일

**안양원** 763-8352
신도법회 매월 초삼일(음)
만일법회 매월 18일(음)
청년법회 매월 둘째 수 오후 7시

**사천왕사** 939-3900
보살계법회 11월12일 오후 7시
어린이 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화엄법회 매월 첫째 수 오전 10시

**관음정사** 793-8075
일반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대한불교진흥원** 719-1855
다보법회 매월 넷째 수 오후 2시
(11월 법사 혜창스님)

**안양 삼막사** (0343)71-5978
동안거해제일기도 11월17일~95.2.17
교리 법회 1·3주 일 12시
초하루 법회 매월 1일(음)

**경북상주 남장사**(0682)34-6331
초하루 법회 매월 1일(음)
보름 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 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장묘제도 개선 "용두사미" 보사부 법안 2년째 표류

## 종교계 추진 영탑 · 납골당 조성 큰 차질

장묘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사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정책입안자들의 안일과 무소신으로 2년째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로인해 종교계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탑, 납골묘조성이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답보상태에 머무르는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10여년간 준비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특히 불교계는 정부가 제안한 화장제에 적극 찬성하면서 영탑 운영을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으나 법률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아 대부분 계획을 보류 또는 백지화 시키고 있다.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경기도 가평에 3만평의 부지를 마련 탑묘공원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나 주민들의 혐오시설반대라는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 화도암, 만불회(회주 학성), 복지법인 보현회(이사장 도각)도 같은 이유로 납골공원등의 계획이 보류되어 있다.

서울 보륜정사(주지 성근)의 경우 납골탑 운영을 위해 경기도 양평에 부지를 확보하고 10년전부터 납골공원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류가 7번이나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끝에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종교계를 비롯 민간차원에서 싹트는 납골문화가 지지부진한 데는 정부가 국민의식을 핑계로 무관심해온데다 과감하게 시도하려는 의지부족과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보건사회부는 지난해 7월 29일 △묘지면적축소(개인묘지 6평,집단묘 3평) △총매장 기간 60년을 기준으로 납골하는 시한부 매장제 도입 △사설납골당의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묘지 및 매장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95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이 법률안은 국회상정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경제차관회의에서 '시한부 묘지제도가 매장에 익숙한 국민정서와 관습에 맞지 않는데다가 묘지면적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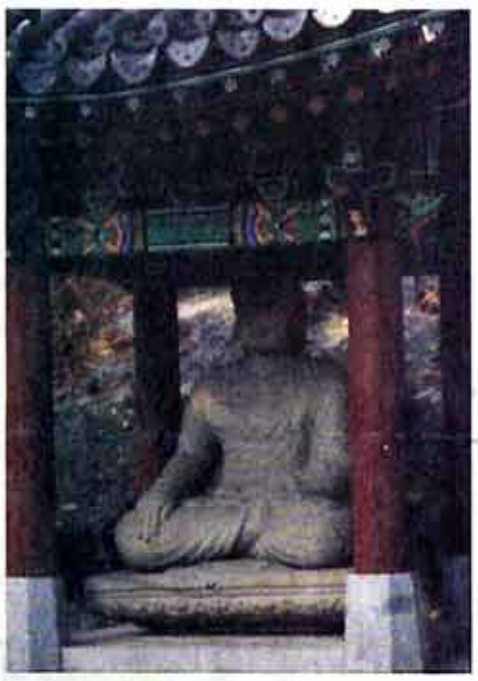
이로인해 묘지개정안은 국회상정을 위한 국무회의에서조차 거론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묘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유림등 일부 계층으로부터의 반대여론에 휩싸이는 것을 기피하고 지역선거구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특별한 이유없이 무기한 연기시켰다"고 주장한다.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관하게 지내겠다는 편의주의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묘개선 입법개정안 작업에 참여했던 오홍석교수(동국대 지리학과)는 "92년 정부가 묘지제도 자문위원회를 두고 수년전부터 국민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취종 법률개정안을 확정했으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1년 넘도록 보류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며 "묘지난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위화감등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여 정부는 하루빨리 법개정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 담당자들은 "장묘제도 법개정안은 현재 공청회등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년 6월경 다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불교방송과 (사)종교문화는 장묘제도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입안자등 지도급 인사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개정법률을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따를수 있도록 정부가 납골재를 위한 실질적인 특별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여론이다. (이준엽 기자)



**청와대 안의 부처님** 잇따른 대형사고와 관련 '대통령이 청와대 내의 불상을 치웠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불상의 건재」를 해명했다. 관심의 촛점이 된 이 불상은 높이 110cm의 석조 좌상으로 일제때 테라우치 총독이 경주 남산에서 옮겨다 놓은 것이다. 89년 노태우 대통령이 관저를 신축하며 위쪽으로 50m쯤 올려 놓은 이 불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불교방송 보도국의 기자가 찍은 것이다.



**"부처님 머리숙여 참회합니다"** 동국대 국문과 학생 1백여명이 지난 2일 학생들의 교수폭행을 사죄하는 집회를 갖고 본관 잔디밭 불상 앞에서 참회의 백팔배를 하고 있다. 동국대는 이번 사건으로 2명의 학생을 제적시키고 5명의 학생을 학칙에 따라 무기정학 시켰다. 또 이사건과 관련 보직교수 29명 전원도 보직사퇴서를 냈다. 〈관련기사 15면〉

**목어**

'우째 이런 일이'

실감 나는 말이다. 어떻게 대학생이 교수를 폭행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종립대학의 부처님상 앞에서 스님을 말이다.

「섭심(攝心) 신심(信實) 자애(慈愛) 도세(度世)」이것이 동국대학교의 교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 지고한 교훈은 만신창이 되고 말았다. 만신창이 된 것은 교훈뿐이 아니다. 동국대생과 교수, 이사진, 종단 그리고 모든 불자들의 얼굴이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패륜과 부도덕의 사회상이 이제 불교집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바른 뜻을 품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 목멱산을 울리는 목탁소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삶을 지탱해 주는 법음(法音)이 돼야 한다는 믿음이 더이상 허물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견학이념이 실종된 종립대학교. 술취한 학생이 불상을 걷어차고 스님에게 폭행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불상인가. 끔찍한 일이다.

### 실종된 견학이념

차제에 동국대는 '타종교인 교원이 있다.' '학생들 가운데 타종교 종아리를 걸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아닌 소문과 실종된 불심의 회복을 위해 명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종립대학에 대한 종단의 참여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종립대학은 불교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일요법회가 정착되고 있다

## 전국 3백여 사암·포교당서 실시

일요법회를 비롯해 매주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는 사암·포교당은 전국적으로 3백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일요법회가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불광〉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법회 봉행 여부를 조사, 발표한 11월호 법해부록에 따르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이 (50곳) 매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전남북·광주지역도 45개 사암·포교당이 매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법회 내용도 어린이·청년·거사림법회에서 군인법회·교리강좌·참선법회·가정법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법회는 서울의 영화사 정토포교원 삼천사 삼보사 흥은사, 경기도의 정도사 신흥사 용주사, 강원도 원각사, 경남 달전사 등에서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별로는 부산30, 경남북51, 충남북33, 경기23, 인천12, 대전13, 대구7, 제주15곳으로 매주 정기법회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법석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8·9면
불교 TV 주식공모에 가족 3대 동참 14면



鐵에도 생명을 담고 싶습니다

쇳덩어리는 그대로 두면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쇠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쇠에 혼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
저희 포항제철이
쇠에 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소중한 공기처럼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은 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포항제철



◇ 삼천리 금수강산이 묘지에 질식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와 신분의 과시용인 호화분묘는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열린마당

## 불교계가 적극 앞장서자

## 장묘제도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영탑공원과 납골묘 납골당 등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교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영탑공원.

사 설

## 더이상 공론에 머물수 없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일이 장묘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의도만한 넓이의 국토가 묘지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보고가 있다.

매장제도의 폐해는 단순히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후손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할 환경이 과괴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물신주의 풍조의 팽배속에서 빈익빈 부일부의 현상이 묘지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될 우려도 있다.

옛부터 장례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크게 수장(水葬) 임장(林葬) 매장(埋葬) 화장(火葬)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우리 민족은 주로 '매장과 화장'을 이용했다.

매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선사시대까지 그 시원을 소급할 수 있다.

특히 유교가 국시로 자리잡은 이조 이후는 매장이 보편화 되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는 효경의 가르침이나 살아서 잘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유택에 잘 모시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 강조한 주자가례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매장제도를 결사적으로 주장하는 계층도 유교적 신념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신념이 그릇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시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제도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불교는 인간을 정신과 물질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한다. 죽음 이후의 육신은 단지 지·수·화·풍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에 시신을 금수에게 공양하는 일장 혹은 수중의 물고기 밥으로 공양하는 수장 등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사후의 장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전륜성왕의 예법에 따라 화장하라고 하였다. 이후 화장은 불교의 대표적 장례법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 화장이 보편화 되었었다.

장묘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매장제도는 반영구적으로 국토를 점유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화장은 전세계적인 장법이 되어 있다.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도 대부분 화장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도 화장이 대중화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계 당국의 과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주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이 될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사람의 것이며,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항구적인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토가 묘지로 바뀌기 전에 관계 당국의 슬기로운 정책이 시행되길 촉구한다.

## 죽어도 묻힐 곳 없다…탑공원 바람직

편집국에서

1993년말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수는 약 1천 9백여만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천 ㎢로 전국토면적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산자의 거주공간인 주거지역의 절반,생산공간인 공업지역의 3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면적이다. 또한 매년 약 20만기의 분묘가 늘고 있으며 여의도만한 면적에 해당한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묘지로 생활공간이 줄어들고 국토가 황폐해지는등 국민생활에 문제점이 드러나 수년전부터 장묘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장묘제의 개선안은 납골제 실시가 실질적 대안으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방안이 정부와 장묘전문가들에 의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납골제가 전통장례로 실시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현실에 맞는 영탑, 납골공원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은 교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영탑공원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5년 부터 2천여평의 부지에 영탑공원을 조성, 이미 6백여기의 영탑이 들어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영탑은 오층석탑으로 기단에 서랍식 유골함이 있어 최소한 16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한불교진흥원, 화도암,만불회등 불교계사찰,단체에서 영탑 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제한과 지역이기주의로 유보된상태다. 최근 서울 보광정사가 법적 대응으로 납골공원허가를 얻어 양평군에 40만구의 유골을 안치할 예정이다. 보광정사는 '후손에게 산소없는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자'는 취지로 납골공원을 추진,납골방법과 봉안 방법으로 실용신안 의장특허를 받아 놓았다.

이외에도 전국의 납골당 44개소가운데 일부를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화장장은 45개소로 총 1백21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년간 총화장 수는 5만6천구로 이 가운데 사산아,개장유골등을 제외하면 사망자의 19.1%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97%,스웨덴 87%,영국 80%,홍콩 72%등의 화장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매장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기피는 유교적 전통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염병지, 전염병자의 시신을 화장 처리한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근래에 까지 이어져 화장제에 대한 아레는 있으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거주 5박경을 대상으로 '묘지제도의 개선방'에 대한 설문조사(서울리서치, 92년 6월조사)에서 현재의 매장제도를 원하는 (28.6%)집단보다 화장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응답자의 30.1%나 되 화장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대적 흐름인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제는 위생적인 여러 조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토지자원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묘제방식이다. 이제 장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장묘연구회나 묘지행정학회등 관련단체는 물론 정부도 세미나,공청회를 통해 시한부묘지제,가족 납골묘지,납골당 등 모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정부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그려시대가지 내려오던 화장제의 정착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문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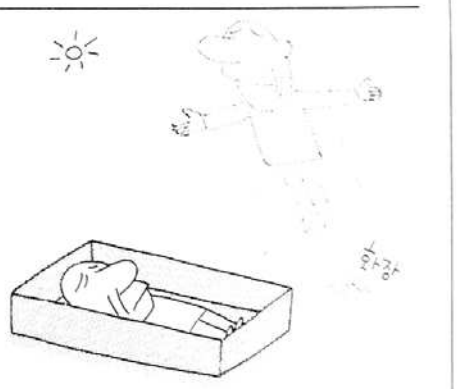
## 사회지도층 솔선·범국민적 운동 절실

한국의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는 정신(한국적 가족제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국토이용 효율화 및 현대 산업사회에 맞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묘지정책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촛점을 맞추어서 수립되어야만 하고, 화장 또는 매장의 장례 방법이나 묘지 평수 및 관계법령 개정이라는 소극적·수동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범국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적극적·능동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번째는 우리나라 묘지의 약 75%가 규제하기 어려운 개인·종중·문중 묘지이므로 이 묘지가 불법·호화·무연고 분묘로 바뀔 수 있는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설묘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기존의 사설 법인 묘지는 공원화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사정에 맞도록 취사선택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묘지의 평수는 현재 국립묘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분에 따른 평수 차이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장군 묘역의 경우 8평으로 줄이고 개인의 묘지도 봉분을 포함하여 묘지 평수를 6평으로 통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인묘지를 가족·종중묘지로 통합하여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아야한다. 세번째는 화장장 시설을 일본의 수준에 미치도록 현대화하고 납골당 시설도 불교계의 협력이나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한부 매장제도는 전국의 모든 묘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되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다. 범률적·행적적인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범시민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네번째는 묘지문제 해결을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적 명절 기간을 통해 매장제도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란 측면에서 장묘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하거나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일선행정기관에 없으므로 시(군), 구에 가칭 장묘행정계를 설치하여 대민봉사를 전담하거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학과 설치도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는 학교교육, 종교단체의 교육,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데 장묘제도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률적인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

김태복 〈중부대 교수〉

## 현대만평

박 구 원





# 수맥차단, 이제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수맥의 유해파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유해파로부터의 보호는 과학적인 기술로 해결해야합니다. 알파매트는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알파매트는 수맥의 유해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수맥의 유해파에 대한 진실을 다시 알려드리고, 아는 바를 실현하고 유익함을 나눈다는 데 '자성'은 자긍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수맥 차단용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혁신적으로 높혔습니다.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전 3-7-5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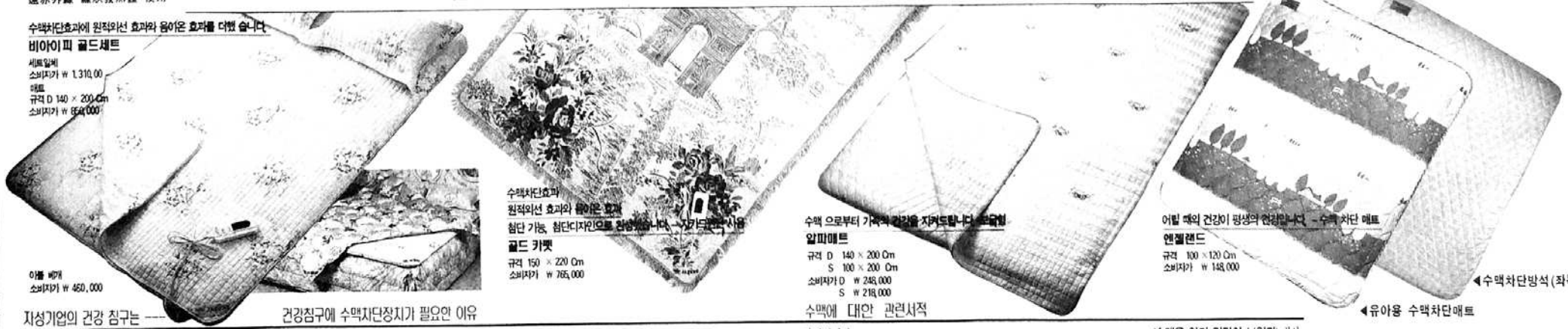
遠赤外線 線狀發熱體 使用

**대리점 및 특판사원 모집**

- 소자본으로 높은 소득 보장합니다.
- 정직한 상품을 정직하게 판매합니다.
- 수맥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모집지역 · 전국 시, 군, 구 단위 지역
조건 · 보증금 없음 · 초도 상품대 가능자
· 영업사원고용 가능자.

문의처: TEL (02) 649-1781, FAX (02) 645-8180




자성기업의 건강 침구는 ——

건강침구에 수맥차단장치가 필요한 이유

자성기업이 금번 개발한 알파매트를 비롯한 모든 건강침구는 명실공히 건강침구로서의 모든 장점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유사 제품들이 안고 있는 단점들을 보충 완성해낸 의욕적인 제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전열식 매트와는 전혀 다르고 수맥 차단 장치에만 주력한 투박한 기능성 위주의 상품도 아닙니다. 그 효능은 물론 내구성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고급 원단을 엄선하여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의 세련에 이르기까지 품질 자체가 이미 침장 전문 업계의 일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최상품으로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많은 격려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수맥은 임산부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어린아이의 경우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타므로 자고나면 경기를 하는 등 매우 위험하다.
◆ 수맥위에 장시간 거겨하는 경우, 신경통,고혈압,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수험생은 책에 정신 집중이 안되고 산만해진다.
◆ 지전류에 오염된 가옥에 살면 발암률이 높다. — 구 스타프의 지전류로 인한 임말생설
◆ 침대의 위치를 바꾸거나 (동편,안미동판 등을 기술적으로 장치하여) 지전류를 피하면 안전하다. —독일 볼프리우트 하우전 도립병원의 비르켈바흐의 연구
◆ 수맥파의 영향은 저생의 생물체 뿐만 아니라 저은 집에 균열을 만들고, 잔디의 성장조차 방해할 정도로 파괴적이다.

수맥에 대한 관련서적

◆ 현대의학은 매내기형아의 제원인을 부인들의 질병이나 약물복용, 살빙이나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맥과 관계가 더 많다.
◆ 서울시내 모 신체부자유자 육아원에서 전찰한 원아 90%가 수맥을 타는 체질이다. — 〈수맥과 풍수〉에서
◆ 에부터 산소의 명당조건으로서 수맥을 피했다.
◆ 장수촌으로 소문난 지역은 대부분 수맥이 없다.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서
◆ 집을 옮기면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 대부분 수맥을 피했기 때문이다.
◆ 중풍, 고혈압환자는 침실의 수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우환이 많은 집안, 도깨비집터라 불리는 흉가는 수맥 때문인 경우가 많다. —— 〈수맥은 과학이다〉에서
* S8S-TV 94년 4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수맥의 신각성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합명회사 자성기업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13-21
소비자 보오실 : T(02) 649-1781,F(02) 645-8180

# 신행수첩

### '깨달음을 향한 정진' 통도사 철야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태응)가 재가 신도들을 위한 큰마당을 마련했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 일반재가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기존 보살선원을 확장, 10월부터 철야 정진법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수행도량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불자에게 개방되는 철야정진법회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시작,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 17일부터 3개월간 계속될 결재정진은 참선법문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0523-82-1181)

### 불법이 자연, 자연이 불법 부산불교산악회 산행

'불법이 자연이고 자연이 불법'인 이치를 깨달은 탓일까 부산불교산악회(회장 안기찬)은 13일 불법을 좇아 영천 은해사로 12차 가을 산행을 떠난다. 은해사 주지 일타스님의 법문과 팔공산 인봉의 경관은 산행에 참여한 모든 불자들을 진정한 불법속의 삶으로 안내할 전망이다. (051-464-2020)

### 인종을 초월한 불심 외국인 노동자 법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불련·회장 월주)은 오는 20일 홍제동 정토포교원(원장 법륜)에서 외국인노동자 법회를 봉행한다.

외국인노동자법회는 지난 1월 서울 구의동 영화사에서 개최된 이후 매월 셋째주에 정기적으로 봉행해오고 있으며, 네팔 티벳 미얀마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회 후에는 점심공양 및 한국불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 화엄의 찬란한 세계로 22일 고은씨등 강연

화엄의 찬란한 세계로 안내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구도기와 '삼귀의'가 설해진 화엄경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경전이다. 그러면서도 내용의 장황함과 방대한 분량으로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경전으로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무비스님과 시인 고은씨가 '화엄경,화엄사상이란 무엇인가' '화엄경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이 강연회는 무비스님 완역 편찬 〈화엄경〉출간기념으로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재승)가 마련, 부산지역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다.

### 탄허재단 10돌 잔치 화엄·열반경 대강좌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재)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연다.

탄허재단은 5일과 11일 각각 화엄경 대강좌와 열반경 대강좌를 개강해 교리적 접근이 쉽지 않은 일반불자들을 맞이한다.

이외에도 화엄결사 제5차 백일기도 입재 및 수계자 접수중에 있어 많은 불자들은 다양한 불교신행의 시대를 맞게 됐다.

12일 오후 3시반 삼일불교교육원 각성스님은 서울 삼일선원에서 '윤리도덕과 화엄사상' 강좌를 통해 불교와 윤리도덕과의 함수관계를 정리한다.

또한 20일 오전 10시 대전 삼광사서는 각성스님과 동국대 정병조 교수가 대전 불자들을 위해 강연을 펼친다.(237-4438)

### 한민족 뿌리를 찾는다 9일 다보문화강좌

삼국시대 말기의 우리민족은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를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미련했다.

진흥원는 매월 실시하는 다보문화강좌를 오는 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탐에 있어서의 고구려 유민과 신라인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제44회 강좌를 갖고 한민족 뿌리찾기에 나섰다.

경제가 발달하고 물질문명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옛 시절과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 이에 (재)대한불교진흥원은 김문경(숭실대 대학원장)박사를 초청, 한민족의 뿌리를 조망해 볼 예정이다. 옛 것을 찾기에 인색했던 문화강좌에 평범한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것 또한 선연이다. 진흥원의 다보문화강좌는 불자는 물론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다. 모처럼 마련된 우리의 뿌리를 찾는 자리에 동참해보자.

(703-0108)

### 「팔정도」새롭게 해석 13일 반야정사서

'불교교리도 시대에 맞는 의미로 답아 보자'

반야정사(주지 석우)는 13일 오전 10시30분 한양대 민희식 교수를 초청 '팔정도의 현대적 해석과 기독교와의 비교'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선보인다.

이번 강연은 경직된 교리해석과 불교만의 가치추구를 벗고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유연한 사고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참석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3491-8834)

### 역사 현장 찾는 동심 굴렁쇠어린이 국토순례

깊어만 가는 가을, 이 늦가을 자줏빛 길가를 따라 어린 동심들이 역사유적지를 찾아 떠난다.

어린이 종합 교양잡지 〈월간 어린이굴렁쇠〉(발행인 김형균)는 제 32차 굴렁쇠어린이 국토순례를 마련, 13일 춘천 청평사를 찾는다.

서울을 출발, 기차를 따라 소양댐까지 뱃길따라 청평사를 찾게 될 〈굴렁쇠어린이〉국토순례는 청평사 회전문(보물 164호), 3층석탑(일명 공주탑), 진락공부도, 환적당부도 등의 역사유물 현장을 보게 된다.

(277-2676)

### 정담스님 사경 전시회

정담스님의 대장경사경 금서 전시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의 일정으로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정담스님은 순금금강경 10폭병풍과 8폭병풍등 사경작품을 내 놓았다. 사경이란 경전을 필사하여 소망을 빌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방법으로 최근들어 많은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다. (723-4082)

### 부처님 또한분 모셔 13일 영월 삼태사

강원도 영월 삼태사(주지 시용)가 13일 오전 10시 또 한분의 부처님을 모신다.

영월읍내 불자들은 건평 1백41평의 전통양식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삼태사에서 새로이 불심을 키울수 있게 됐다.

내년 봄쯤 법당이 완공되면 일상과 불심이 함께 할 수 있어 영월읍 불자들의 신심을 더욱 설레이게 한다.



## 생명을 나눕시다

동국대 불교학생회(회장 이익수)는 창립 33주년을 맞아 생명공양실천운동본부(본부장 법장)와 공동으로 10월31일과 11월1일 양일간 교내에서 헌혈운동을 펼쳐 3백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하는등 성황을 이뤘다.

## 통일대탑 상륜부 올리며 사경봉안

### 20일 삼선포교원 진천 보탑사에서

"탑은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정성입니다"

충북 진천군 보련산에 건립중인 삼선포교원 보탑사(주지 지광) 상량문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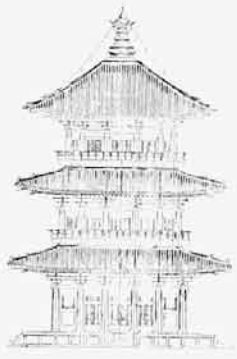
이처럼 오늘의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신라 황룡사 9층목탑이후 1천3백여년만에 높이 1백26척, 약 42미터의 통일대탑을 세우고 있다.

오는 20일 오전 11시에는 탑의 상륜부를 올리면서 해원결진언을 사경하여 봉안한다. 이날 법회로써 지난해 5월에 착공된 통일대탑의 외형이 갖추어지게 된다.

삼선포교원은 상륜부내에 봉안할 사경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오전11시 포교원에서 진행한다. 신도들의 사경은 금은동으로 만든 함에 넣어져 상륜부에 20일 봉안된다.

통일대탑의 준공은 96년 6월이다. 천일기도와 함께 진행중인 보탑사의 탑은 삼선포교원 대중들의 원력에 따라 서서히 완성되어가고 있다

20일 오전 8시30분 삼선포교원 출발 (923-0582)



◇ 통일대탑

## 나의 수행일기



### 민 희 식

<한양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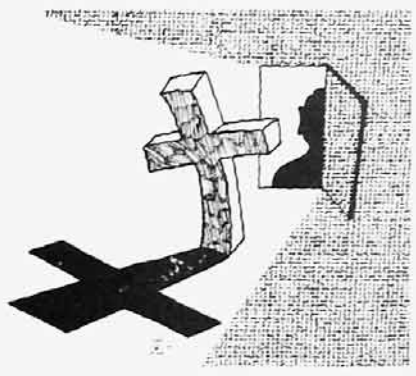
지금도 강연때문에 전국각지를 다닌다. 지방강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내가 동반자가 되곤한다. 강연을 마치고 그 지역의 사찰을 참배하기 위해서이다.

언젠가 익산의 왕궁리 오층 석탑을 찾은 적이 있다.석탑 앞에 섰을 때가 석양무렵이었다. 얼마나 넋을 잃고 바라 보았을까. 문득 탑주위에 둥그런 후광이 있음을 발견했다. 석양빛을 받은 후광의 찬란함은 그대로가 불국토였다. 그 빛은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기도한 기운이 모이고 모여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 나 역시 자그마한 정성으로 원력하나를 탑위에 얹어 놓았다. 그 원력은 바로 35년전에 만난 작은 마한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35년전, 프랑스에 유학간 후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던 중 놀랄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학도서관에서 중세기의 프랑스 문학에 관한 책을 읽던 중 부처님이 기독교의 최초의 성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읽은 작품은 〈성 바라르모와 성 죠세파전〉이다. 이 희랍어의 텍스트는 기원 8세기에 다마스카스의 성 요한이란 학자가 쓴것이다. 그는 회교국의 재상이었으나 기독교로 귀의하여 에르사렘의 사바스 수도원에 묻혀 아리스트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신앙이론을 세웠다.

그가 쓴 〈부처님 전기〉는 인도에서 중세 페르샤어로 번역된후 다시 시리아어로 번역된것을 바탕으로 희랍어로 쓴 것이다. 이 〈부처님의 전기〉는 11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기가 무섭게 급속히 유럽에 퍼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북유럽까지 번졌다. 이 〈부처님 전기〉는 중세 프랑스어로 쓰여진것만 해도 13세기에는 5권이나 된다.

16세기에 카톨릭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항하여 수도원을 옹호하기 위하여 신앙의 근거로서 이 작품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초의 성인의 날로 카톨릭에서는 11월 27일을 죠셉(부처님)의 날로 정하였다. 성자의 날이란 성인이 천국에 탄생한 날 즉 이세상을 떠난 날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매년 그날에 해당되는 성인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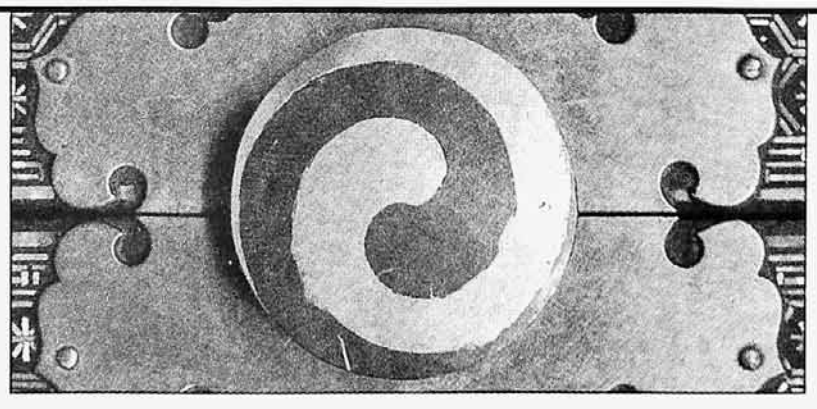
## 35년전 「성 조셉전」이 불교로 인도해

1440년 서양에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래 성서가 번역되고 1473년에는 스트라스불에서 벰상 드 보베가 〈역사의 구감〉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는데 〈성 조셉전〉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다. 〈성 조셉전〉이 부처님의 전기라는 것은 유럽인의 관심이 동양에 쏠리고 난 이래 동양과 교섭을 갖게 되자 부정할수 없게 되었다. 17세기에 포르투칼의 역사가 디에고 루 콘트가 이점을 처음 지적하였고 1859년에 프랑스의 코레쥬드 프랑스의 총장이었던 에드와르 드 라불레가 쥬르나르 드 데바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점 하나만 보더라도 카불릭의 가르침에는 얼마나 불교의 뿌리가 깊은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프랑스문학에 대한 연구가 불교와 부딪치게 된 것은 이러한 연구의 인연에서 오는 것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불교와 서구사상〉〈법화경과 신약성서〉〈성서와 뿌리〉등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예수가 마니프라 스님 밑에서 수행한 스님이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의아해 했다. 그러나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다.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의 협박성 항의와 문의를 받기도 했다. 서양역사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였다. 많은 타종교인이 새로운 역사를 접하고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다. 이후 '예수는 부처님의 제자였다' '부처님과 성경' 등의 책이 나와 최근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것으로 안다. 언젠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총정리해 또 책으로 낼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부처님 생애〉와 〈조셉전〉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여튼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자기를 금일없이 개발하기를 바란다. 이타사상을 설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나에게 있어서는 인류의 구제를 위한 가장 뛰어난 종교라는 것을 마음속깊이 느끼게 되며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의 뿌리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내자신 자부심과 함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생활속의 불교④



"열쇠는 세 치 안팎입니다."

*아무리 큰 문이라도,*
*저 덕수궁의 대한문이라도,*
*잠긴 문을 여는 열쇠는*
*세 치가 채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보배의 창고도 그렇고,
천국의 문이라도 그렇고,
그것을 여는 것은 손아귀에 잡히는 작은 열쇠 하나입니다.
문제는 열쇠에 있습니다. 문을 환짝 열어 젖히려면 그 열쇠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그 육중한 문을 밀어젖히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를 찾아야만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이익을 추구하느라 땀 흘리고 애를 쓰지만,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세상의 모든 이익을 다 말아비릴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뒤덮을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진짜 이익, 진짜 욕구를 좇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지사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진짜 보배창고를 손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보배창고를 여는 세 치 미만의 열쇠, 그것은 불법입니다.

좀더 **정성**으로 대우받길 원하신다면
좀더 **신속**하게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좀더 **정확**한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기획 편집 인쇄 제작

**명신인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신인쇄**
서울시 중구 예관동 136번지
전화·267-9468 팩스 : 267-9469




### 한일우호평화탑 건립10돌 기념법회연 태 연스님



태연스님(재 일본한민족 불교도총연합회장)은 지난달 23일 일본 고려사에서 한일우호평화의 탑 건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에서 경신회(회장 최남억)를 비롯 광주불교연합합창단, 강릉 관음사 신도회 등의 불자 1백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경신회 회원들이 영가천도 다리굿을 펼쳐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비무장지대 평화탑 추진

태연스님은 대회사에서 "아직도 일본 전역에 2차대전때 희생된 30만~70만명의 한국인 희생자 유골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들 유골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연스님은 일본내에 보현사 고려사등을 창건하여 20여년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차대전 및 6.25사변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천도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동남아 포교 마치고 귀국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은 홍콩 싱가폴 등 35일 동안의 동남아 포교순례를 마치고 8일 귀국. 숭산스님은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면담, 국영 TV와의 인터뷰, 대학 강연을 통해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 불교과 학생에 장학금



광우스님(정각사 장학회장)은 지난달 31일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심원스님 인도철학과 석사과정 염본스님 선학과 4학년 법상스님 등 8명에게 총 2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법무부 종교위원 위촉



도정스님(천태종 명락사 주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교위원으로 위촉, 영등포교도소 송선홍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 '한일학술회의' 참석





황수영박사(전 동대총장, 사진 위)와 홍윤식교수(동국대박물관장)는 9일 일본 대정대학이 개최하는 「고대 한일불교문화교류」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석한다. 황수영박사는 이에 앞서 3일 청주 교원대 10주년 학술행사에서 「신라 동해구의 유적」에 관한 강연도 가졌다. 홍윤식 교수는 대정대 학술회의에서 「고대 한일문화 교류에 있어 사원의 기능과 그 문화의 성격」을 발표한다.

### '시의 날' 행사 개최



이형기교수(동국대 · 한국시인협회장)는 지난 1일 한국현대시인협회와 공동으로 제8회 「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재정자립만이 불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30일 제 18대 대불청 중앙

### 대불청 신임 회장 이 상 번 씨

회장에 선출된 이상번 회장은 재정확립을 강조하고 대불청의 대외적

## "재정자립 · 대외적 위상 정립위해 노력"

위상정립,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을 되찾아 새로운 불청문화건립, 지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불청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청인의 주인의식결여에 기인한다고 자체분석한 이 회장은 "21세기를 향한 불청인들의 의식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상번 회장은 모든 불청인의 염원인 불청회관 건립과 관련해 "재임기간동안 회관건립을 완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동만이라도 세울 것"이라고 밝혀 불청회관건립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우〉

### 세계 Pen 대회 참석



김양식씨(시인, 한 · 인 문화연구회장)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용과 바관용'을 주제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 61차 세계 Pen대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 '육당 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가 제 10회 육당 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전통적 서정에 현대적 일상성을 조화시킨 시조를 쓰고 있는 이씨는 65년 등단이후 10여권의 시집을 냈다. 내년 봄에는 자작 시조 50여편과 그 시조를 주제로 자신이 그린 동 · 서양화를 한데 묶어 시조집을 낼 계획이다.

### 태평무등 승무 공연

이명미씨(부산 혜화여고 교사)는 무용공연을 오는 12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갖는다.

이명미씨는 태평무 살풀이 승무를 보여준다.

### "청소년 포교 힘써야"

문체부 장관상 수상 선진규 법사



"현재의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는 가는 무척 중요한데 우리 불교는 지도자 교육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한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교육 연수중 학생장으로 활동이 두렷하고 학업에 뛰어난 성적을 보여 지난 28일 수료식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선진규법사(봉화산 청소년수련원장)는 1급 연수 참석자의 대다수가 기독교 등 타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안타까웠다고 토로한다.

"우리 불교계도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자격취득연수에 참가해, 청소년포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진규법사는 이번 지도자 연수를 마친 참가자들을 주축으로 발족하는 청소년 지도사협의회 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창립준비에 여념이 없다.

## 내일을 여는 물자

김 희 경 〈조계사합창단 지휘자〉



## 조계·청계사 합창단 맡아 지장보살 주제로 작곡 중

"자! 다시한번 입을 맞춰서 아주 부드럽게 불러봅시다." 지휘자 김희경씨의 지시가 떨어지자 마자 2백여 합창단원들의 입이 동시에 열렸다.

"청산에 흐르는 물은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한방울은…"

연습실 가득 돌아나온 노래소리가 김희경씨의 손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오는 5일 KBS홀에서 열릴 '불교음악의 향연'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조계사 합창단과 지휘자 김희경씨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작년 2월 조계사 보음합창단의 지휘자로 부임해 활동해온 그는 중앙대 음대 작곡과를 나온, 몇 안되는 불교음악계의 젊은 일꾼이다.

"모두를 조화롭게 하나로 이끌어 내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하는 김희경씨는 한양대 박은성교수에게 오케스트라 지휘법에 대해 개인레슨을 받는 등 경소에도 공부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는 지휘자다.

"타종교에는 음악목사라는 것이 있어 합창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는 김씨는 "불교도 합창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음성포교사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종단차원으로 찬불가 공모, 합창대회 등 행사가 마련돼야 찬불가와 합창단의 활동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늘날 우리생활 자체가 서구화 되다보니 대부분의 찬불가들이 서양의 음악양식인 화성구조만을 따르는 단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는 그는 "서양음악의 양식과 기법도 받아들이면서 범패와 같은 우리의 음악양식을 발굴하고, 재해석을 통해 우리만의 독창적 찬불가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공인 작곡을 살려 앞으로 작곡활동에 더욱 힘을 쏟고 싶다는 김희경씨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음악공부를 통해 전통의 혼이 살아있는 나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속에 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87년 동아음악콩쿨 당선, 서울음악제 3회연속 당선, 서울국악대공연 창작부문 당선, 난파음악제 최우수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의 소유자인 김희경씨는 조계사합창단과 함께 청계사합창단 지휘도 맡고 있으며, 지장보살을 주제로 한 연주용 대곡을 작곡중에 있다.

〈이은자 기자〉

### '문화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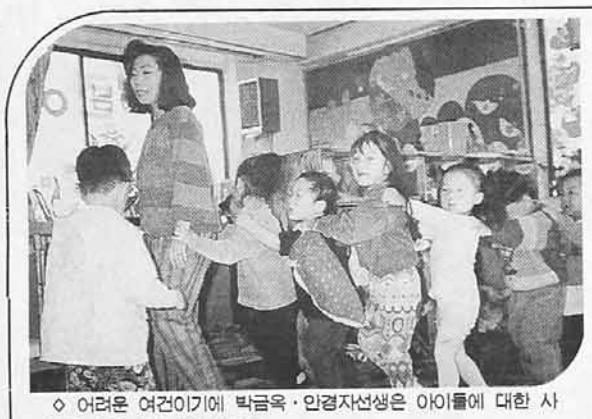
박송암스님(인간문화재 50호, 봉원사)은 지난달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94 문화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범패를 통해 한국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된 스님은 지난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받은 후 약 1천2백명의 후계자를 양성 배출하며 범패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다.

### 득도수계식서 대중공양

원봉스님(일욱승가회 경인지부장)은 지난 10. 18~11. 1에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실시된 제 18회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식에 참가한 후학 스님들에게 대중공양과 함께 승려로서 지켜야 할 예법 등을 지도 하였다.

### 선서일미 서예전 개최

한영주씨(동국대 경주캠퍼스 출강) 는 지난 달 27일부터 2일까지 백악예원에서 서예전을 가졌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등 선서일미의 경지를 드러낸 최근작을 전시했다.



◇ 어려운 여건이기에 박금옥 · 안경자선생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새록새록 솟는다.

## 영세가정 아이들 따뜻한 보살핌에 "동심 활짝"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햇님어린이집

"뱀팀은 구호를 무엇으로 할까요?" "뱀뱀요!" "토끼팀은요?" "깡충깡충요!"

서울 도봉구 미아 8동 소재 햇님어린이집(원장 박금옥)은 하루 종일 개구장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은 아침 7시 반. 이때부터 아이들의 엄마는 햇님어린이집 박금옥, 안경자 두 교사다.

"이번에는 동생반이 이겼어요. 언니반은 동생반에 박수 쳐 주세요"

공동체조활동이 끝나고 동생반(3~4세), 언니반(5~6세)으로 나누어 하는 놀이에서 아이들은 마냥 신나기만 하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중 어린이에 대한 부실한 교육여건에 충격을 받아 자신들만이라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보살피자는 다짐속에 햇님어린이집을 마련한지 벌써 3년. 뜻모은 친구 네명이 적립금을 마련, 은행 대출금으로 월세를 감당하고 최소한의 보육비만을 받기에 두 교사의 보수는 그야말로 쥐꼬리만큼이다.

이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봉재, 가내수공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마음은 있어도 어린이집에 대한 물질적 후원은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두 교사는 숨돌릴 틈없이 바쁜 생활속에서도 석왕사와 서울불청에서 불교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신심깊은 불자이기도 하다.

왁자지껄한 점심시간이 지나면 목청껏 울던 아이가 금새 울음을 멈추고 "삼촌!"하며 달려가 품에 안긴다. "울면 바보야. 남자가 씩씩해야지"

수업을 마치자 마자 아이들이 보고 싶어 서둘러 달려온 동아리 회원들. 시험이 있을 때 조차도 어린이집의 일이라면 언제 어느때든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삼촌이고 이모이며 함께 뒹굴며 뛰어노는 친구이기도 해 박금옥 안경자 선생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이제 이곳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닌 부모, 자원봉사학생 등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었어요. 우린 한 가족이죠." 라는 두 교사는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보다 더 좋은 여건속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파요" 라며 안타까워한다.

어려운 여건이기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새록새록 솟아 하루하루가 보람이라는 박금옥 안경자선생. 「햇님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부처님이 되는지도 모른다.

〈한영우 기자〉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요.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 · 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순례일정표

| | |
|---|---|
| 제 1일 | 12시 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향발 |
| 제 2일 | 방콕 — 카트만두(수와이 앰브넛, 리마불교 사원 참배) |
| 제 3일 |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쿠미르 사원등 순례) |
| 제 4일 | 카트 만두 — **룸비니** 순례 — 소노울리 |
| 제 5일 | 소노울리-발람푸르(기원 정사 순례) |
| 제 6일 | 발람푸르 — **쿠시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
| 제 7일 | 쿠시나가르 — 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
| 제 8일 | 파트나 — 라자기르(죽림 정사 순례) — 브다가야 |
| 제 9일 | **브다가야**(마하보디 대탑) — **사르나트**(녹야원 참배) — 바라나시 |
| 제 10일 | 바라나시(갠지스강 유람) — 아그라 |
| 제 11일 |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등 순례) — 보사월 |
| 제 12일 | 보사월 — 아진타 석굴 — 오랑가바드 |
| 제 13일 | 오랑가바드 — 엘로라 — 봄베이(비치 야경 관광) |
| 제 14일 | 봄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향발 |

卍 출발안내
· **제1차 순례**: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11월 19일)
· **제2차 순례**: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12월 17일)
· **제3차 순례**: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1월 21일)

卍 동참금
W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卍 신청금
W 200,000

卍 수속 준비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미소지자**: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 W 45,000
— **여권소지자**: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참가인원이 단체여행기준에 미달시 출발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 동참금:655,000 출발일:11/23, 30 12/7,14,21,28
· **일정**:서울 — 방콕 — 파타야 — 아유타야 — 방콕 — 서울

생활 속의 불교를 보며…… 미얀마 · 태국 8日 — 동참금:1,400,000 출발일:11/18, 25 12/2, 9
· **일정**:서울 — 방콕 — 양곤 — 파간 — 만달레이 — 양곤 — 방콕 — 서울

부처님의 치사리를 친견하며…… 스리랑카 6日 — 동참금:1,070,000 출발일:11/25, 12/2,9,16,23,30
· **일정**:서울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 — 폴론나루와 — 시기리아 — 담불라석굴 — 캔디 — 콜롬보 — 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 동참금:645,000 출발일:11/24, 12/1,8,15,22,29
· **일정**:서울 — 타이페이 — 고웅(불광사) — 화련 — 타이페이 — 서울

※해외 여행 상담 및 여권, 비자 수속을 정성껏 대행하여 드립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代)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 오늘의 불교 ❸

## 음식을 받는 일

〈供養〉

# "수고한 모든 이들에 감사하라"

### 물한방울도 나에게 오는 까닭이 있어

음식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어디가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보니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듯하다.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하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어야 한다. 육체에다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사에 이르고 급기야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음식을 먹는것은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쉬입없이 일어나야 한다.

불교에서 쓰는 말 가운데 공양(供養)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진지 드셨읍니까. 밥을 먹으라고 하는 말보다 상하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언어를 사용한다. 공양하셨느냐. 공양하세요. 이처럼 어감상 공손히 높혀위진 말이 어디 있겠는가. 불교의 평등성 화합성이 함초로히 자리한 말씀이다.

근자에 나온 통일법요집에도 공양에 대한 예경문이 나와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 쌀한톨에 88번 손길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받는것은 그 음식이 나에게까지 오게 된 연유를 알아야 한다. 그저 물건이 건너 오는것이 아니다. 모든것은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의 역사를 찾아 살피게 되면 이 곡식과 음식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될것이다. 한 여름의 땀비를 적시면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애간장이 그 낟알 한알속에 함초로히 도사리고 있는것이다.

쌀 한 톨을 건지는데 88번의 손질이 간다고 쌀 미(未)가 八十八이라고 파자하는 옛 사람들의 슬기가 돋보인다. 정말 그토록 무한한 공덕이 스며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기름지고 찰지고 맛있지 않는가. 이와같은 연유와 까닭을 깊이 성찰하면서 두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씨로써 이 음식을 받기가 부끄럽다. 얼마나 감격스런 감사의 표현인가.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줄 알면 이 사람은 음식을 들어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 이 모든 음식은 마땅히 내가 먹어도 한점의 부끄러움도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우악스레 먹는 사람은 좀 못난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일것이다.

나의 덕행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토록 긴 한 음식을 제공하여 주니 감사하고 고맙다고하는 마음이 앞서 나와야만 사람의 덕행이다. 덕행이란 자기 능력과 공덕에 비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나보다 남의 노력과 공덕을 기리는 마음이 바로 덕행인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서 음식을 대하여야 한다. 하루 세끼 끼니를 대할 때마다 집에서 먹던 음식점에서 먹던간에 요리하는 담사자만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어들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제 자신에게는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굶주림만 모면하는 마음, 아귀처럼 제 배만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식충이가 되지 말고 조금만 취하여야 한다.

### 탐애 버리면 건강

음식은 약식이 되어야 한다. 과식이나 과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가. 절대적으로 적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육신을 지탱하고 약인것이다. 보약이라고 하여 과용하면 그 몸을 상하게 한다. 보약도 적량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진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도업을 성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축생업이나 아귀업을 받아나온것이 아니라면 보리심을 발양하여 보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보살은 남을 이롭게 하는 무한한 광명이다. 어둡고 막힌 곳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밝게 뚫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이 보리도량이다. 이 성취의 길을 바르게 갈려면 공양에다른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남의 생명을 자비롭게 받들어 모실줄 알고 제 살림을 알뜰히 살필줄 알아야 한다. 남과 내가 둘인 듯 하지만 궁극의 세계에서는 바로 하나이다.

거저 된 것은 아무 없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과가 있는것이다. 남앞, 물한방울도 나에게 오는 까닭이 연기되어 있는것이다. 하루 삶에 대하여 공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받고 공양 받쳐드리면 일체중생이 보리보약을 들고 성불하는 날도 멀지 아니할 것이다. 저 중생을 위하여 공양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문밖의 풍경

시인 박희진

# "시인답게 사는 게 평생의 화두"

임연태 기자

북한산의 단풍이 붉어 시인의 창문도 진홍의 축제를 하고 있었다. 창을 열면 시인의 방은 어느새 북한산의 가을빛으로 가득하다.

백발이 듬성듬성 시인의 연륜을 얘기해 주는데 그의 삶은 아직 한여름의 푸른 숲과도 같았다. 북한산을 바라보는 능선에 지어진 아담한 빌라의 3층에 10년째 살고 있다는 박희진 시인 그의 문 앞에는 「好日堂」이란 당호가 붙어 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글귀를 줄여 붙인 이름이다.

당호가 얘기 하듯 박희진 시인의 삶은 언제나 즐겁다.

"내 평생의 화두는 시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시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시에 미쳐 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나 즐겁다. 즐거운 마음, 기쁜 삶이 아니고야 어떻게 시를 쓰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와 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지요. 시를 쓰는 것은 언어에 몰입해 언어로서 인간의 정신을 순화시켜 다시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선수행을 하는 것은 생각에 몰입해 생각의 차원마저 넘어서는 것이지만 결국 인간에게(혹은 자신에게) 기쁨, 더할나위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란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니까요.

박시인은 시를 쓴다는 방법과 선을 한다는 방법은 같은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이기에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수행을 잘해서 보살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시를 잘써서 「시인보살」이 되고 「시인부처」가 되는 것은 같다"는 얘기다.

*"수행을 잘해서 보살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시를 잘써서 「시인보살」이 되고 「시인부처」가 되는 것은 같습니다. 시쓰는 일은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는 구도행이니까요"*



◇ '시인다운 삶' 살기를 화두로 삼고 시쓰기에 몰두하고있는 박희진 시인.

## 잠잘때는 방하착 깨어서는 초발심

시인의 설명은 다시 구체적으로 이어 진다.

"시는 무엇으로 씁니까. 언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어는 무엇입니까 사회학자들이야 사회적 계약이라고 말하겠지만 시인에 있어 언어는 인간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의 정신을 순화시키는 작업이 시를 쓰는 일인 것입니다."

시인의 창작작업은 인간의 정신을 맑고 깨끗한 경지로 이끌어 가는 구도행이란 설명이다. 박시인이 말하는 「시인보살」, 「시인부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만한 설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인 자신의 삶이다.

"시인의 삶은 시인다와야 합니다. 시인의 생활은 시가되야 합니다. 시인다운 삶은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속의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와 시인이 다를 것이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 해 주는 것이겠군요."

박시인의 삶은 언제나 시인답다. 그는 시인다운 시인이고자 「잠잘때는 방하착 깨어서는 초발심」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시어들의 축제로 그는 시를 써 내려간다. 1행시도 쓰고 4행시도 쓴다. 더러는 수백행의 장시도 써낸다. 시인의 표현대로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퍼내는 것이다.

"오후가 되면 육체의 신진대사를 위해 북한산의 숲으로 들어 갑니다. 숲속에서는 나 자신도 숲이 되고자 합니다. 노을지는 시간에 돌아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찍 잠을 잡니다. 다시 공룡대는 시어들의 봄부림으로 분류분류 눈을 뜨고 시를 쓰기도 합니다."

박시인의 하루는 단조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시인다운 시인이고자 곧불대는 영혼은 단조롭지 못하다. 올 봄부터 박시인은 사할기행에 몰두해 있다. "사할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결한 인간의 정신 그리고 과거·현재·미래의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박시인은 사할 기행에서 돌아오면 그 사할을 시로 노래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1행시는 직관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것은 박시인이 4행시로 쓴 1행시에 대한 정의의 일부분이다. "직관적 상상력이란 선수행을 통한 사물의 실체를 바로보는 눈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를 쓰는 작업 자체가 선수행의 과정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박시인의 눈은 어제나 사물의 이면과 이면마저 넘어 선 곳에 있는 진리를 파악 하는데 귀를열려져 있다. 그것은 바로 박시인을 시인이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생활과 시작업의 과정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의 독특한 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눈으로 그는 연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순백의 연꽃은 순백의 극락, 진홍의 연꽃은 진홍의 극락」이라고.

이글퍼면 시인이 보는 연꽃의 세계가 왜 아름다운 극락인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1955년에 등단, 40년간 시를 써오며 14권의 시집을 낸 박시인의 서가에는 또 4권의 시집이 준비되고 있다. 사할을 다니며 쓴시와 환경과괴를 염려하는 시 그리고 시와 선의 경지를 합일시킨 '마음의 시'들이다. 그중 1행시 한개절이 기자의 눈을 번쩍 뜨게 한다.

「폭포를 오래보고 있노라면 폭포 떨어지는 굉음이 안들린다.」


부산 FM 89.9MHz 서울 FM 101.9MHz 광주 FM 89.7MHz

# 불교방송을 부산, 경남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법홍포와 지방문화 창달의 새 지평을 열어갈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이 곧 탄생됩니다.

부산·경남지역과 광주·전남지역 일부를 가청권으로 한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은 정부로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준공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본사는 **늦어도 95년 2월까지 개국을 목표로** 방송시설공사와 기자재 발주 등 모든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는 부산·경남지역, 광주·전남지역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뜻을 모아 지방국을 어렵하게 설립하여, **불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송**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 설립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주 파 수 :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 시 험 방 송 : 95년 1월 8일(성도절)
* 개국예정일 : **95년 2월 1일**
* 사 옥 : •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빌딩 10, 11층(부산)
  • 광주직할시 북구임동 78-2 대수 빌딩 2층(광주)
* 전 화 : • 051-644-5114(부산) • 062-528-6261(광주)

○ 불교부산방송 설립성금 접수

| 은행명 | 구좌번호 | 지점명 | 예금주 |
|---|---|---|---|
| 국민은행 | 129-01-0000-650 | 범일동출장소 | 불교방송 |
| 농협중앙회 | 905-17-001278 | 부산진 지점 | 〃 |
| 동남은행 | 001-04-0130-761 | 본 점 | 〃 |
| 부산은행 | 020-13-000218-6 | 본 점 | 〃 |
| 외환은행 | 050-13-25048-2 | 범일동 지점 | 〃 |
| 한일은행 | 041-173791-13-201 | 범일동 지점 | 〃 |

○ 불교광주방송 설립성금 접수

| 은행명 | 구좌번호 | 지점명 | 예금주 |
|---|---|---|---|
| 광주은행 | 013-127-004081 | 광주 지점 | 불교광주방송 |
| 농협중앙회 | 616-01-076513 | 광주 지점 | 〃 |
| 중소기업은행 | 189-039430-01-011 | 중부 지점 | 〃 |

BBS 불교방송

**경력·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지역 | 모집부문 | 구분 | 인원 | 응시자격 |
|---|---|---|---|---|
| 서울 | 기자직 | 신입 | 0명 | 신입사원 |
| 부산 | 방송직(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 신입 및 경력 | 00명 | • 정규대학 졸업이상자 또는 졸업예정자<br>남자 1966년 1월 이후 출생자<br>여자 1969년 1월 이후 출생자<br>경력사원<br>• 정규대학 졸업이상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자<br>남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br>여자 1969년 1월 이후 출생자 |
| 광주 | 방송직(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 신입 및 경력 | 00명 | 공통<br>• 병역필 및 면제자<br>•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br>• 건강하고 신체 건강 정신분열자 단(부산실비 거시 격격증 소지자 우대 |

2 전형방법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불교학 제론 논문 독성실시) 3차 면접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 1부 2) 빌업관 사진 / 2매
3) 자격증 사본(방송관련직종 소지자에 한함) 4) 대학 졸업년 성적증명서 / 1부

4 원서교부 일시 및 접수
• 일 시 1994년 11월 1일 ~ 11월 9일(수)
• 교부 및 접수
본 사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대보 B/D 15F(T 02-705-5224~6)
불교부산방송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 B/D 10 11F(T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광주직할시 북구임동 78-2 대수 B/D 2F(T 062-528-6261)

5 기타 사항 1)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불교와 여성상」밝힌 논문화제

한국 불교사에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얼마나 될까. 여성의 불교 참여에 대한 논문이 두 학자에 의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허흥식교수의 「중세의 의례와 여성의 역할」과 허정희씨(창원대 강사)의 「불교와 현대여성의 역할」이 그것.

### 고려시대 불사·제례서 적극활동

동국대 허흥식교수 / 창원대 허정희교수

### 오늘날엔 차별문화 극복 과제

허흥식교수는 지난달 2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역사민속학회 학술회의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으며, 허정희씨는 오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정희교수



◇허흥식교수

허흥식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가족 형태나 상속에 대한 연구 범위에서만 논의된 틀을 벗어나 불교 의례(儀禮)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허교수는 "삼국시대에는 여성이 사회공동체나 국가 제례에도 중요한 역할을 보였고, 고려시대에 가족의 제례를 주관하는 측소된 경향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비교하면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놀라우리 만큼 강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이 불사(佛事)에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예가 자주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이는 "고려의 여성이 종교행사에는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정희씨는 "불교의 총체적 발달이 다양성과 유연성의 폭넓은 전개과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소승적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둔화시키는 차별문화적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교의 여성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유연성의 장점이 적용돼야만 개방되는 문화에 적응 가능하다는 것이 허씨의 주장.

허씨는 "부처님 시대에도 결코 차별은 없었고 여성문화와 남성문화의 구별이 있었을 따름"이라고 강조하고, "역할분담이 달리 나타나는 양상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불수 있다"고 말했다.

# "탐욕·과소비가 공해 불러"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 심포지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진단한 두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법륜)은 지난 2일 '환경위기시대의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동국대 철학과 김용정교수는 '생태윤리와 불교윤리'를,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노융희교수는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교수는 발표문에서 서구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적하고, "오늘의 신과학운동이나 동양의 유기적 전체론적 패러다임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환원주의적 또는 원자론적 인과적 결정론을 충분히 뛰었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새로운 전일적 세계관(holistic worldview)으로서의 생태학적 세계관을 "모든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개인과 사회가 자연의 순환과정에 깊이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교수는 "진정한 자연보호와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탐욕과 과소비 문화에 물든 현대인들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환경윤리학을 제시했다.

오늘날 환경윤리학이 안고 있는 세가지 과제로는 △모든 생물의 생존권 문제 △미래 세대의 생존에 대한 책임 △인간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지구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이 제시됐다.

한편 노융희교수는 오늘날 불교의 수행은 개인의 변화에 있어 가장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풍부한 경험




◇ 지난 2일 불교방송 3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 심포지엄

### 김용정 교수 인간중심 개발 탈피해야

### 「불교사상」 환경보호 열쇠 노융희 교수

널리 확산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원인은 인류문명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서구중심의 문명에 있다고 지적하고, 서구와 동양의 논리체계를 비교하면서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열거했다.

노교수는 "불교적 사고(思考)가 개발과 환경보전의 등일을 위한 지혜의 보고"라고 전제, "개발과 보전이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동양적 사고가 지닌 인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교수는 "오늘날 생활양식의 전환이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기에 개인의 구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교수는 위와 같은 역할을 위해 우선 '불교의 생명사상'을 보다 보편적인 언어로 풀이해 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사상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만으로는 환경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불교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교수는 "지금의 환경운동이 현실문제에 얽매여 다양한 사상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다시찾은 원효「금광명경소」

### 교원대 김상현교수 일본책 인용문서 뽑아 재구성

그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금광명경소(金光明經疏)」를 모아 재구성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간행 〈동양학 제24집〉에서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가 발표한 「집일금광명경소(輯逸金光明經疏)」란 논문이 바로 그것.

원효(617~689)의 90부(部)에 가까운 저서중 현존하는 것은 겨우 20여 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완본은 13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잔본 및 단편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김교수는 원효의 잃어버린 저서를 찾아내거나 단편적인 글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쏟은 결과, 지난해에는 「집일승만경원효소」를 발표할 수 있었고, 올해 「집일금광명경소」를 소개하게 됐다.

이 논문은 원효소(元曉疏)로부터 2백28회 1만2천여 자를 인용한 일본 원효(願曉·835~871)의 「금광명최승왕경현추(金光明最勝王經玄樞)」의 인용문을 뽑아 원효가 저본으로 삼았던 「팔권금광명경(八卷金光明經)」의 품(品)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김교수는 「금광명최승왕경현추」에 인용된 분별삼신품(分別三身品)에 대한 원효의 소문(疏文)이 2천7백여 자나 되는 사실에 주목, 원효가 「금광명경의 삼신설(三身說)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교수의 이번 논문은 불교의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병품(除病品)에 관한 원효의 주석 등 새로운 자료와 원효의 불신론(佛身論)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담고있어 원효 교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까요

문 저는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만한 좋은 직장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일터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하성우)

답 직장내의 문제점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나의 공부재료입니다. 사람은 순탄하기만 한 환경에서라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름대로 역경계에 부딪칠때 배우는 바가 있게 됩니다. 공놀이 하는데 상대방이 공을 쳐 넘기니까 내가 치게되고 잘하는 게기도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이란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잘못도 잘못이려니와 먼저 나의 잘못, 부족한 점을 살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십시요. 그렇지아니하고 너는 어디까지나 너, 나는 나라든가, 요건 잘되고 조건 잘못되고 하는 식으로 따진다면 어느 때 차원 높게 접프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나는 잘하는데 상대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나 나나 고만고만하게 만났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하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면 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 나의 언행도 부드러워져 어느새 문제점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업보가 녹고 습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곧 좋은 일터를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 대입시를 둔 자식이 딴청만 부리는데

문 대학 입시가 코 앞에 다가오는데 제 자식 놈은 공부는 않고 딴청만 부리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야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이 큽니다. (대구시 북구 태전동·서용호)

답 먼저 자녀에 대한 애착을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요.

'그 아이도 틀림없는 불보살이요 부처될 성품을 타고 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내 자녀도 불보살일진대 오죽이나 잘 해 나가겠습니까. 다만 자녀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강제한다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마음으로 북돋아주고 일깨워주고 에너지를 넣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또 그게 어렵다 하시겠지요.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요. '내게도 마음의 전화가 있고 자녀에게도 마음의 전화가 있다. 부모 자식간이니 그 전화는 서로 가설되어 있고 내가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니 마음의 전화가 통하지 않을리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 마음의 전화가 통하게 되어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통화를 시도해 보십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아니게 통신이 됩니다. 마음의 통신, 물리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의 연결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수능수험생 합격발원기도는 어떻게

문 저는 입시생을 둔 주부입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처지라 매일 합격발원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도 정성이 모자라서 일까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박인영)

답 무엇을 해 달라고 빌면 그것은 벌써 타력신앙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여기 저기 의지하고 싶겠지만 그렇더라도 타력에 기대는 한 공덕도 없을 뿐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깡통들고 다니며 구걸하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구걸하라고 가르치셨던가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는데 관세음보살은 내 마음 안의 법당에 있지 바깥 법당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예불하는것도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되게 나를 닦는 과정이지 복을 빌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합격발원기도를 한다고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되는 도리를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는 것이지 '붙게 해주십시오' 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형편이 어려워 시주금을 못낼때는

문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남과 같이 시주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상 마음에 걸리는데요,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임행순)

답 진정한 보시란 본래 내가 한다는 생각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를 등한했다거나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한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 양무제라는 임금이 많은 불사를 해놓고 달마대사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묻자 대사께선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사 남들처럼 사찰에 시주를 하지 못한다해도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시주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아끼듯이 남의 생명을 아끼고, 내가 내 몸 아끼듯이 남의 몸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보시는 이뤄지는 것입니다. 돈 몇푼 내고 못내고를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이 닿는대로 하실뿐 억지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이 물질양는 무주상 보시가 진짜 보시입니다.

##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창간 현대불교신문

"
2000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길 빕니다
"

개혁의 성공만이 튼튼한 사회를 보장합니다

민주자유당불교신도회일동
민주자유당청년직능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 782-8378 (代) 783-9811 (교) 5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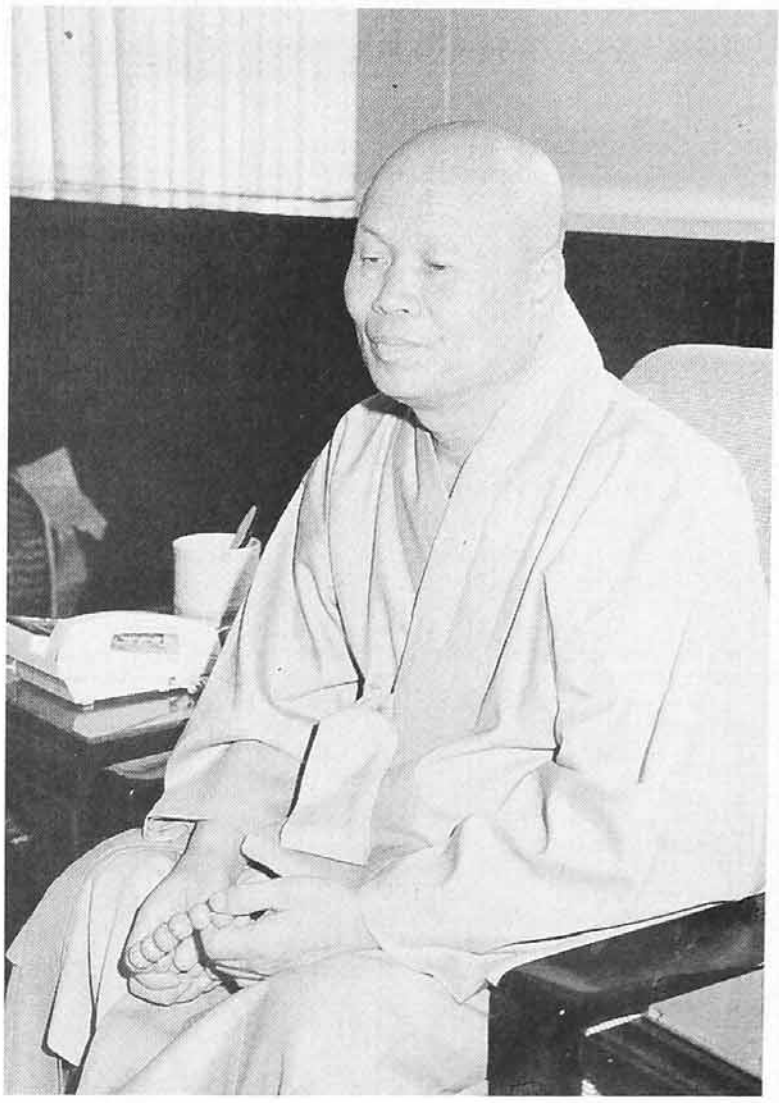
## 수 요 인 터 뷰

# "시대가 달라졌으니 법당부처 안방에 모셔야죠"

## 태응스님

〈불교텔리비전 대표이사〉

대담 : 최정희 편집국장



— 안녕하십니까. 스님의 조용한 이미지와는 달리 요즘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기색없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스님의 특징이고 장점으로 이미 평이 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불교텔리비전 대표이사에 취임하신후 대규모 회사를 차근차근 구성해 나가면서 내년 3월 1일 개국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신 스님의 저력에 교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 부처님의 실력

▲ 이게 어디 내 힘입니까. 부처님 실력이고 가피지요. 나는 그저 원력만 갖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구성원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교계 불자님들의 뜻심에 힘입어 열심히 심부름 할뿐입니다.

— 스님, 뵙기에는 산중에서 기도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최첨단 대작불사를 맡게 되셨습니까.

▲ 잘 보셨습니다. 보신대로 산중 승려입니다. 그러나 전법은 수행승의 의무이며 사명이고, 시대에 따라 포교방법도 달라져야 하므로 새로운 포교에 나선 것 뿐입니다. TV화면을 포교당이라고 생각할때, 돈이 아무리 들고 어려워도 최첨단 포교당을 짓는데 안할수 없죠.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사장직을 맡게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조계 · 천태 · 진각종등 3대 종단이 함께 출자키로 하면서 공동 대표이사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조계종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통도사가 15억원을 출자하고 다른 교구본사에서 힘을 모아 37억9천7백만원을 납입 자본금으로 3월 9일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단에 문제가 생겨 4월 2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대표이사직을 맡게됐습니다.

— 오늘 (10월31일) 불교텔리비전 불자주식청약 마지막날이라 회사로 찾아오는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고, 또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불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동참의식과 불심이 있는한 한국불교의 내일은 밝다고 봅니다. 이 불심이 바로 불교TV영상을 통해 전법의 꽃으로 피어날테니까요.

— 지난 9월 10일부터 불자주식공모를 시작하셨는데 50일간의 법정기간동안에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청약신청서 접수는 10월31일 마감이지만 주금 납입기일이 11월 11일까지이므로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45억원 정도로 봅니다. 아직 부산지역 후원회에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모두 마무리 지으면 70억원은 무난히 조성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 밝은불교 · 생활불교

— 금액도 중요하지만 동참인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텔리비전에 불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답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 1만5천여명이 45억원을 청약했고 부산신도까지 포함하면 2만5천명에서 3만명이 이번 주식공모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며칠후면 정확한 집계가 나올 것입니다. 통도사 미주분원인 타코마의 서미사와 독일에서까지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1억원씩 청약하신 대주주도 2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동참에 있어서는 대주주나 소주주나 그 성원의 뜻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 불자가 주인이 되는 TV방송사가 될 때 영상포교는 그 만큼 기반을 튼튼히 할테니까요.

— 이번의 공모주를 포함한 총자본금은 얼마나 되며, 불교텔리비전이 차질없이 운영될려면 자본금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 37억9천7백만원을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후 지난 7월 제가 제 1차 자본금으로 22억원을 증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주식공모금 약70억원을 포함하면 약 130억원이 조성됐습니다. 우리 방송사가 원활하게 운영될려면 200억원이 확보돼야 할것으로 봅니다. 개국후 제2차 불자주식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영상포교사 채널 32

— 불자들이 주식청약을 하면서 상장 · 비상장 주식을 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불사에 동참하는 뜻이 컸을텐데요. 그래도 회사입장에서는 기업공개때까지 주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포교당 세우는 마음으로 맡아 … 성원에 감사

*"유익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정보 홍수 시대이므로 정서적 정감에 호소하는 영상을 매일 2회씩 방영한답니다. 관세음의 32응신을 상징한 불교채널 32를 쉬는 마음으로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방송의 지향점입니다."*

▲ 흑자일때는 공개 이전에도 이익배당을 합니다. 뿐아니라 방송행사참여, 문화센타 수강특전, 국내외 성지순례 참여 우선권, 영상물 · 도서 염가 제공, 관람료 징수사찰 무료입장등의 특전을 마련, 불교가족으로 대우합니다.

— 아직도 불교텔리비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불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 불교텔리비전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로서 첨단과학 시대를 주도해 나갈 뉴미디어이지요. 예불을 비롯한 제반의식과 큰스님 설법, 교리강좌, 경전해설, 명찰 · 해외성지순례, 찬불가, 어린이 만화등 부처님가르침을 가정에서 TV화면을 통해 쪽넘게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교텔리비전은 첨단 정보화시대에 깨달음의 길을 영상으로 펼쳐보일 포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TV는 기존의 KBS, MBC등 공중파 방송과 달리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인 개국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 4월25일 지금의 이태행본부장, 홍사성제작국장, 이호경영관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내정하고 다보빌딩 2층에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6월 23일 현재의 자리(금호전기빌딩)로 이전한후 제1스튜디오 공사 및 각종 장비를 발주, 오는 12월초부터는 스튜디오제작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력도 경력 · 신입포함 80여명이 개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백명선으로 식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야외촬영, 항공촬영과 해외촬영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불교텔리비전의 특징을 어떻게 살리실 계획이신지요.

### 동진 출가한 '기도스님'

▲ 제작방침에 관한 건인데 내가 듣기로는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불교, 그리고 할머니 불교에서 탈피한 미래 지향적인 밝은 불교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예쁜아이와 네타이맨 신사의 합장, 아이들과 함께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스님등을 영상화하겠다더군요. 그림이상의 확실한 포교가 없다는 지론을 들었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음악과 영상만 흐르는 「영상 날바나」같은 작품을 하루 2회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익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정보 홍수시대에 심성을 계발할 수 있는 정서적 정감에 호소하자는 제작의도랍니다. 즉 관음보살의 32응신을 상징한 불교채널 32를 보면 편한 마음으로 쉬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방송의 지향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영상이 말로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다고 제작진들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 교계에서는 동진출가하신 스님을 「기도스님」이라고 하면서, 매사를 원만하게 어떤 고민도 풀어내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기도는 수행승의 당연한 일상이고, 수행인답게 살려면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일을 매듭없이 풀어가는 것이 제 생활 신조입니다.

— 통도사 주지직과 해동고교 · 자비원 이사, 불교방송 이사등을 맡고 있으며, 지역 유치원 · 영아원도 운영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지 않으신지요.

▲ 옆에서 거들어 주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 「리틀 붓다」를 감상하실 정도로 영어실력이 수준급이고 튀어나와화술씨에 차를 즐기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 오직 불교텔리비전 발전이 곧 한국불교발전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하면서 잠시 쉴때 필요한 여기 일뿐 화제삼을 정도는 아닙니다.

— 불교텔리비전 로고가 말해주듯 부처님의 금빛 진리가 온누리에 고루 퍼질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 명 서

지난 10월26일 국보2호인 원각사지 10층탑과 대원각 사적비가 정부당국의 무성의와 방치로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보도에 깊은 충격을 금할길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문화재의 훼손은 비단 원각사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주 감은사지 석탑, 경주 노천 불상, 석굴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럴때마다 본 종단은 단지 이교도의 소행에 기인한 문제로 치부하고 정부당국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각사지의 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관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음을 볼 때 과연 현정부가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 사적도 아닌 국보를 이렇게까지 훼손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이땅의 불교 문화재를 암묵적으로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경부고속철도가 경주지역의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을 경유하게 되어 손실지경에 처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비통함과 함께 깊은 우려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중언할 필요없이 너무나 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당하면 더 이상 원상태로 복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 이를 보전하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하고 후세들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전하여 후세에 고이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이의 훼손을 방치하고 묵인하여 역사적 유물을 상실케 함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전 불교도는 이번의 사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계의 총의를 모아 대책을 수립하는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는 국보 및 보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불교계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종단은 성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전문부서인 '사회문화부'를 배치(종헌에 명시)하여 내달 출범하는 새 종단 집행부에서 출범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도 및 불자들은 이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여론 작업을 조성할 것이며 그에 앞서 성보관리에 문제가 있는 현 정부에 먼저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불기 2538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장 탄 성 합장**

##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3)

對客言談 不得揚於家醜
(대객언답에 부득양어가추하고)

但讚院門佛事 不得詣庫房
(단찬원문불사언정 부득예고방하여)

見聞雜事 自生疑惑
(견문잡사하고 자생의혹이어다.)

非要事 不得遊州縣
(비요사면 부득유주렵현하여)

與俗交通 令他憎嫉 失自道情
(여속교통하여 영타증질하고 실자도정이어다)

손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절 집안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사원의 불사를 찬탄할 자언정 고방(창고·사무실)을 드나들며 이 일 저 일 듣고 보아 일없이 의혹을 품지 말라.

요긴한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고을 저 고을로 노닐며 떠돌지 말고 속인들과 서로 사귀어 오가며 다른 이로 하여금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게하여 도 닦는 뜻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지어다.

儻有要事出行 告住持人 及眷衆者
(당유요사출행이어든 고주지인과 급권중자하여)

令知去處 若入俗家 切須堅持正念

住社堂 愼沙彌同行 愼人事往還
(주사당하되 신사미동행하며 신인사왕환하며)

愼見他好惡 愼貪求文字
(신견타호악하며 신탐구문자하며)

愼睡眠過度 愼散亂攀緣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반연이어다)

공부하는 처소에 머물 때는 어린 사미와 함께 행동하기를 삼가하고 세속의 인사로 오가는 것을 주의하며 다른 이의 잘 잘못을 밝히려 하지 말고 지나치게 문자를 구하려 하지말며 잠 자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인연 경계에 끄달려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할것이다.

若遇宗師講經說法 切不得於法
(약우종사승좌설법이어든 절부득어법에)

作厭離想 生退屈心
(작현애상하여 생퇴굴심하거나)

或作閑閙想 生容易心
(혹작관문상하여 생용이심하고)

當須虛懷坐之 必有機發之時
(당수허회문지하면 필유기발지시하며)

不得隨學語者 但取口辦
(부득수학어자하여 단취구관이어다)

## 이일저일에 끄달려 의혹을 품지 말라
## '나같은 범부가 어찌…' 물러서면 끝장

(영지거처하며 악입속가어든 절수견지정념하되)

愼勿見色聞聲 流蕩邪心 又況披攜戲笑
(신물견색문성하고 유탕사심인데 우황피휴희소하여)

亂說雜事 非時酒食 妄作無碍之行 深乖佛戒
(난설잡사하며 비시주식으로 망작무애지행하여 심괴불계이다뇨)

又處賢善人 嫌疑之間 豈爲有智慧人也
(우처현선인의 혐의지간이면 기위유지혜인야리오)

혹시라도 요긴한 일이 있어 꼭 나다녀야 하거든 주지나 대중을 통솔·관장하는 이에게 고하여 가 머무는 곳을 알게하라.

(그때) 만약 속인의 집에 들게 되거든 부디 바른 생각을 굳게 지니되 보고 듣는 경계에 끄달려 방탕하고 삿된 마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인 바, 하물며 웃기를 풀어 헤치고 웃고 떠들면서 쓸데없이 잡된 일이나 지껄이고, 때도 아닌 때에 밥먹고 술 마시며 망녕되이 무애행을 하노라 하여 부처님이 정해주신 계율을 크게 어길 것인가?

또(그렇게 함으로써) 어질고 착한 이들과 싫어하고 의심하는 사이가 된다면 어찌 지혜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만약 종사(선지식)가 법상에 올라 설법하는 때를 만나거든 그 법을 듣고 부디 벼랑에 매달린 것 같은 생각(나 같은 범부가 어찌 까마득이 높디 높은 법을 이룰 수 있으랴 하는생각)을 지어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서는 아니 되며 또는 익히 들어본 법문이라는 생각에 그렇고 그렇노라는 식의 쉬운 마음을 지어서도 아니된다.

(법문을 들을 때는) 모름지기 마음을 텅 비우고 들으면(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지 않는 텅 빈 듯한 마음에서 그윽히 귀를 기울일 뿐이면) 반드시 깨달음의 기연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자와 말만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다만 입으로 관가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所謂蛇飮水 成毒 牛飮水 成乳
(소위사음수면 성독하고 우음수면 성유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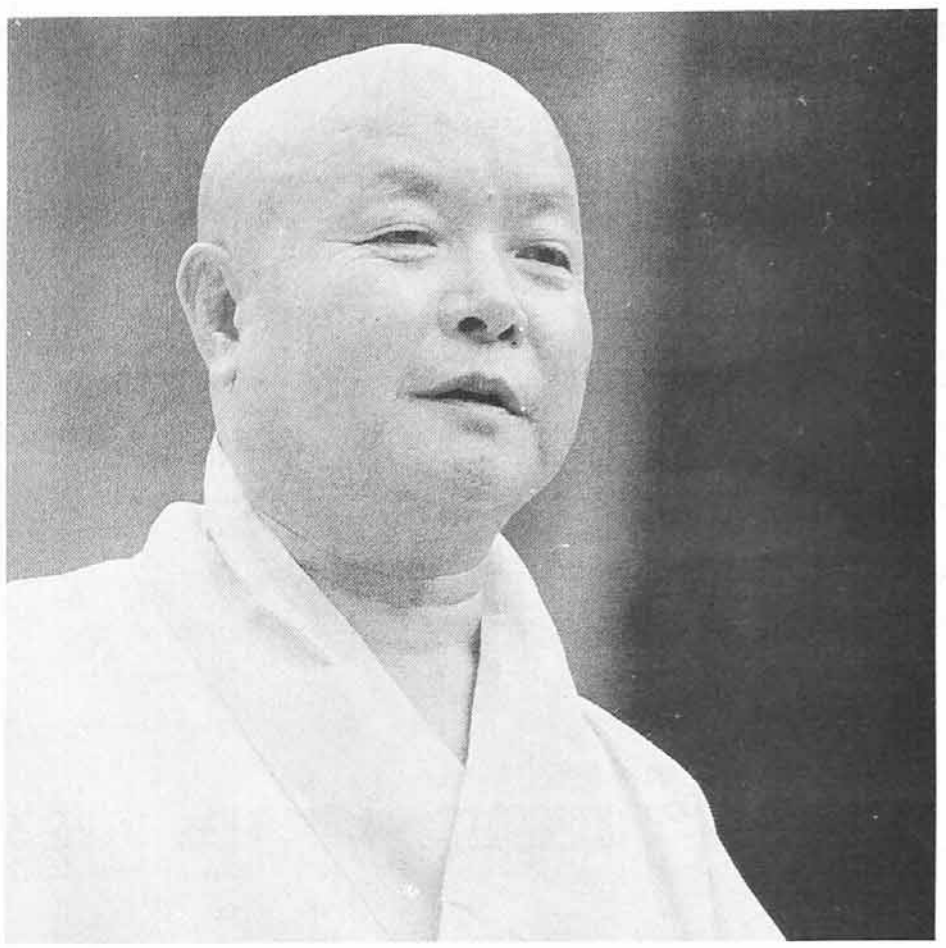
智學 成菩提 愚學 成生死 是也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라함이 시야니라)

이른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하듯이 뜻을 취해 습기를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문자나 말에 얽매어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에 빠진다 함이 바로 이를 두고 이름이니라.

龍眼

## 지상 법석

# "중생은 죄 많다고 낮지 않고



**원담 스님** <수덕사 방장>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마주대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불교는 1천6백년의 역사 동안 명맥이 마치 가는 실과 같았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근래들어 불교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참다운 불교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불교가 산중 불교가 아닌 중생과 함께 부딪히고 포교하며 수도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것은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문을 듣는 일 자체가 더없이 흡족한 일이자 밝은 미래불교를 여는 단초입니다.

### 불교아닌 불교

현대의 불교는 형식불교이지 참다운 정각(正覺) 불교라 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신을 믿는 것처럼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우리들에겐 '나'를 찾을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필요없고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비록 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어느 처마 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대신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절이나 부처가 있는 곳에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란 존재는 어디에나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곳이 어디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나'를 찾기 위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여러분들의 물러서지 않는 신심에 머리 숙여 존경하는 것입니다.

춘색무고저(春色無高低)한데 화지자장단(花枝自長短)이라.

봄빛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이 피어 차별이 없고, 꽃가지는 긴 것 짧은 것이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나 꽃가지가 길건 짧건 분명한 꽃이며 제 나름의 꽃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꽃모양은 제각기 아름다운데 꽃가지만 길고 짧을 뿐입니다. 여기서 길고 짧다는 것은 시각적 현상인데 길고 짧은 것이 동일하다는 이치를 살필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서울 주변의 나지막한 산 꼭대기 보다 삼각산 꼭대기가 높고, 한강의 물은 그 보다 훨씬 얕습니다. 그렇지만 한강물과 삼각산 꼭대기를 긴 줄로 대어보면 수평이 똑같습니다. 수평이 같을 때 일체가 평안한 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생은 죄가 많아서 낮은 것이 아니고, 부처는 도를 통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도리가 있습니다.

평등한 도리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 도리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승부욕만 있으면 하늘이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승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반드시 정신이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고 정신이 있는 천지(天地)라면 정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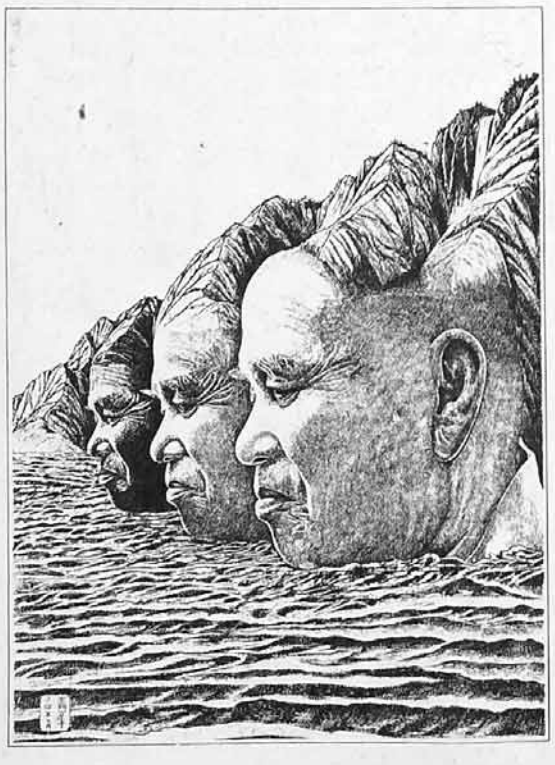
내가 정진할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진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 때는 잠도 안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여 몸 가누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나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옆구리가 결리는 병인데 무슨 늑막염도 아니고, 그 병이 일어나면 전신을 꼼짝할 수 조차 없었어요. 숨도 못쉬어서 무척 고통스러웠는 데 발작할 때마다 한 사흘씩은 잠도 잘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데 숨도 못쉬고, 몸뚱이를 움직거려야 사는 데 한 사나흘씩 움직이지 못하면 죽을 지경이 되지요.

그 무렵 공부가 무엇이고 어떠한 위력을 지닌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러한 병이 생겼으므로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삶과 죽음을 용감하게 끊는다(生死勇斷)는 말이 있는데 이 공부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시험해 보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문득 잠이 들었어요.

가물가물한 잠 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림을 들여다 보다가 병이 나서 고통을 받았는데 꿈 속에서 다시 병이 들었어요. 그 그림 속에는 이 세상에서 처음보는 형체가 나오는데 머리가 한 3백개도 더 되고, 입에서 뭔이 나오며 발톱이 낫같이 생긴 하여간 보


• 성철큰스님 종정취임 법어 **山은山 물은 물의** 사자후를 청봉스님이 삼법인 선화로 표현한 불기2531년도 불미전금상 수상 작품임(동국대학교 총장상)



작품규격:가로 365×세로 543(㎜)

# 성철스님 무진 법문 선화 소장 안내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있다.
-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방편일뿐 현실이대로가 절대요 극락이다.
- 사찰은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 불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법당에 계신 부처님 보다 먼저 불우한 이웃돕기에 솔선하는 것이 참불공임을 알아라.
-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 내가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자기성찰의 이익을 성취하게 함이니라.

—성철스님 법어중에서—

성철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하며 큰스님의 선사상을 널리 고양하고자 법어중 山은 山 물은 물을 한국선화의 대가이신 청봉스님의 역작 삼법인 선화를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성철스님 유훈대로 선화보급의 이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점 1구좌 작품대금:₩60,000
- 온라인 계좌

농 협:053—02—064700 (복지회 권오성)
국민은행:006—21—0567—711 (복지회 권오성)
우 체 국:010579—0052194 (복지회 권오성)

※입금후 연락주시면 작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급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전 화 : (02)496—5293 439—6129
FAX : (02)208—7975

## 지상 법석

# 부처는 도 통했다고 높지 않다"

기만 해도 기절초풍할 것처럼 생긴 물

### 참선의 위력

건이었어요. 그 물건이 앞으로 나와 발톱이나 이빨로 나를 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나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염라사자 더라구요. 염라사자를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나를 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와 나의 육신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숨도 못쉬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하니까 눈·귀·코·혀·몸·의식이 모두 마비가 되었어요. 그 물건이 내게 다가오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죽을 지경이란 말예요.

저 물건이 나를 잡으러 오는 무상살인인데 저놈을 어떻게 접대해야할지 묘책이 없었어요. 그땐 내가 젊었으니까 '네까짓 것이 아무리 그래 보아야 내가 용트림 한번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하고, 막상 해보니까 나의 젊은 용기로는 어림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라 치면 더욱 숨이 막히고 옴쭈는 겁니다. 맥이 정지되는 상태라 그냥 놓아두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듯 공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싶었지요.

멍청하게 있어 봤지요. 그것이 도로 생겨나 볼 수 있도록 화두를 놓고 멍청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물건이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무섭고 징그럽게 생긴 물건이 날 억압하는데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먼저의 경험을 살려 죽기 직전에 다시 화두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묶였던 것이 풀리고 정지되었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일어나 보니 바다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사람 죽는 것이 어려운 만큼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몸뚱이 벗는 순간도 그 만큼 어려워요. 생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죽어 보았으므로 죽음을 좇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통달하면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후에 가만히 앉아서 그 때의 일을 생각해보니 죽을 때 저승사자가 나를 좇아와서 잡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도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그러한

*'봄빛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이 피어 차별이 없고, 꽃가지는 긴 것 짧은 것이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나 꽃가지가 길건 짧건 분명한 꽃이며 제 나름의 꽃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꽃 모양은 제각기 아름다운데 꽃가지만 길고 짧을 뿐입니다.*

요. 그때도 육신을 시험하기 위해 화두를 들면 그렇게 아프던 등허리가 편안해졌어요. 쌀짐의 무게 보다 화두의 힘이 더 컸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나쁜놈이라 욕할 때가 가장 참기 어려웠는데 그땐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하고 싸웁니다.

어디 화가 일어나나 안일어나나 화두로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고 화두에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정해 보이고 미운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 속에 미운 생각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하고 싸우려들지 않고 저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때 새삼 화두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두만 들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요.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명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참선을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참선한다고 누구한테 자랑하지도 말며, 상을 세워서는 더욱 안됩니다. 참선을 할 때는 부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선하는 것은

## 일념으로 참선을하면 지혜가 절로 나와 나를 잊을 바엔 잊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그래서 화두를 사용해 보기로 작정했어요. 문득 만법귀일(萬法歸一)이란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 화두를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만법귀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꼼짝할 수 없도록 결박했던 것이 저절로 풀어지면서 그 무섭게 생긴 물건은 점차 멀리 사라졌어요. 내가 화두를 들었더니 꼼짝할 수 없던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막혔던 숨통도 확 트였어요. 그토록 뜨려고 애를 써도 떠지지 않던 눈을 떠보니 정상적이었어요.

내가 깨어날 때가 되어서 깨었나, 화두를 들어서 깨어났나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두도 안들고 일을 당했어요. 밤에 자다가 겪은 것입니다. 기둥에 용을 새겨 붙여 놓았는데 사라가용왕이라 합니다. 옛 사람들은 그 용이 살아나면 큰일난다고 해요. 그래 제까짓 것이 아무리 사라가용왕 아니라 그 할아비라도 내겐 별것이 아니다. 나한테 덤벼 보아라 하고 살려주었지요. 역시 전에 경험했던 나찰귀처럼 무서운 용이 달려들어 내 몸뚱이를 감기 시작했어요. 그래 얼마나 감는가 실컷 감아보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감아서 바짝 조이는데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숨이 막힐 지경이예요. 아! 사람이 죽을 적에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았습니다. 공기의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 몸뚱이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아 보았어요.

점점 더 조여들어와 육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떡하니 화두를 들고 입정해 버렸어요.

### 마음 먹기 나름

그랬더니 용이 감고 있던 몸뚱이가 슬슬 풀어졌어요. 정말 희안한 일이었어요. 참선이 좋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닌 실재였어요. 그래서 수 많은 수좌들이 밤낮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지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어려운 때가 무척 많았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수덕사에서 정혜사로 쌀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도 육신을 시험하기 위해 화두를 들면 그렇게 아프던 등허리가 편안해졌어요. 쌀짐의 무게 보다 화두의 힘이 더 컸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나쁜놈이라 욕할 때가 가장 참기 어려웠는데 그땐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하고 싸웁니다.

어디 화가 일어나나 안일어나나 화두로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고 화두에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정해 보이고 미운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 속에 미운 생각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하고 싸우려들지 않고 저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때 새삼 화두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두만 들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요.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명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참선을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참선한다고 누구한테 자랑하지도 말며, 상을 세워서는 더욱 안됩니다. 참선을 할 때는 부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선하는 것은 선전이 아니고 나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선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은 나를 완성하는 것이며, 자아의 완성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찾을 때 나와의 전쟁도 남과의 불화도 모두 사라져 안심(安心)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 인류의 평화는 나를 찾는 데서 시작하여 '나'를 찾은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법문이 좋은 법문이리,
쓸데없이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입이나 좀 씻어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③

## 극락과 지옥

김 성 규

간혹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때면 언제나 가슴에 와 닿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어느날 바라문교도가 붓다를 찾아와 여쭙기를 "붓다여, 당신은 주장하기를 모든 과보를 스스로 짓고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바라문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비록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우리 바라문교에 귀의하여 우리들이 그가 자재천(바라문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면 그는 그곳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당신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릅니까?"하고 질문하였다. 붓다는 조용히 일어나 바라문을 데리고 뒷편에 있는 연못으로 갔다. 붓다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 연못으로 던지면서 바라문에게 물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돌이 연못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라문이여!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업을 지으면 그것은 무거운



## 실체 따로 없는 마음의 산물

돌멩이와 같아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며, 바른 생각을 하면서 착하게 살았다면 하늘을 날으는 구름처럼 그는 극락에 태어날 것이다.

바라문이여!

결국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곧 우주의 진리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신비하게만 여겨졌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은하수에 처음으로 망원경을 들이대어 항성의 대집단이란 것을 밝힌 사람은 갈릴레오였다.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증명할 수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발견하여 목성 주의를 돌고있는 4개의 위성을 관측한 것은 1610년 1월 7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신학자는 '목성의 위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용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하느님이 만들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망원경을 '악마의 도구'라고 비난하였다. 이 사건으로 갈릴레오는 교회측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에 그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두 대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를 출판함으로써 두번째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카톨릭교회의 위압 때문에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리며 재판소 문을 나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우주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빛은 1초에 30만Km를 달린다. 빛이 지구로부터 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8초이며, 지구로부터 태양까지는 약 8분 걸린다. 태양에서 태양계의 끝에 있는 명왕성까지 가는데는 5시간 반이 걸리며, 은하계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는 약 10만광년(1광년은 빛이 일년동안 가는 거리를 말한다)이 걸린다. 은하계에서 또 다른 은하계로 추정되는 안드로메다성운까지는 약 190만 광년이 걸리며,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50억 광년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죽어서 가는 세상, 극락이나 지옥이 있는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조건이 비슷하여 고등생물이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혹성이 수천 개 정도 된다. 이 혹성들 중에 어떤 것은 극락이고 또 어떤 것은 지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혹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할 것이며,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것이다.

결국 모든 혹성들의 조건은 다 같은 것이다. 즉 모든 혹성이 극락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락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외적인 의미에서 극락과 지옥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자유와 평등 평화가 충만한 정의사회를 구현할 때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화와 이기심이 가득차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무시되는 사회윤리가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가 바로 지옥인 것이다.

내적인 의미에서 극락과 지옥은 자신의 문제로 귀착된다. 바른 실천윤리와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눈을 갖고 있어 항상 자애로우며 자유로운 사람은 그 스스로 극락을 이루어 극락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욕심스럽고 화를 잘내고 어리석음이 가득차 시기하고 질투하여 항상 화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이루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극락을 이루면 온 우주가 불국토가 되는 것이며, 내 마음 속에 지옥을 이루면 우주에 전쟁과 질병과 고통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영남대 의대교수)


소년소녀 가장 돕기

대행스님
부산대법회



참인간으로 사는 길

부처님께선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는 길"을 가르치고자 오셨습니다.

마음, 그 무궁무진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주시고자, 여기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충만된 삶, 영원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원장 혜 도
신도회장 이하경 합장
박성빈

장 소
KBS 부산홀 (남천동)

일 시
불기 2538년 11월 13일 (일) 오후 2시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후 원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거사림회
부산불교실업인회 · 대한불교신문 ·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 부산 불교방송 · KBS 부산방송국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606-080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전화 (051)402-7077 / 팩스 (051)403-1077
포교실: 465-1530


## 공명정대한 선거를 촉구하면서

1600년 한국불교사는 출가승단의 역할에 따라 명암이 교차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중적 열망을 바탕으로 시작된 조계종의 개혁불사도 이제 과도기 상황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오늘의 개혁작업의 공과는 뒷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향후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리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느냐 여부가 금번 개혁의 공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분위기는 그 열기로 인하여 자칫 개혁의 애절했던 의지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바 16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냉철한 각오로 승가대중은 금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각오 —**

**—. 금번 조계종단 대표자 선출은 문중과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

**—. 후보자는 대중이 공감할 경력과 종책의 홍보를 통해서만 참여할 것이며 세속적인 방법은 철저히 배제하고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 만에 하나 현 개혁 집행부가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종도와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인즉 개혁대중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엄정중립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될 혼란은 과거의 어떤 종단 분규 이상으로 종도들을 절망하게 할 것인즉 사부대중은 금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 화엄신장이 되어 감시의 역할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불법선거사례를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동림동문회
공 명 선 거 감 시 단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301호
전화:02) 723-5263~5/722-2214~5
팩스:02) 739-2047

석림동문회 사무국장 선종

#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 수미산 〈3〉

## 밤 뱃길

*저 거대한 하늘의 낙조를 바라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낙조 뒤의 보이지 않는 바를 보는 일(觀)은 쉽지 않을 터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진대 그 세계는 영영 없는 세계나 다를 바 없다.*



그림 · 최규일

예성강 전포나루에서는 가근방의 섬이나 다른 포구에 가는 배가 많았다. 노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들리는 것이 이른 아침부터였고 배와 배 사이의 걸쭉한 욕지거리 인사를 나누는 거친 뱃사람들의 쉰 목소리도 제법이었다.

"왜 간밤 뭬지지 않고 또 나와서 성화인가".

"왜 네 녀석은 전포 색주가 춘심이 방죽에 폭 빠져 뭬지지 않고 살아서 귀찮게 구는 게여".

"허어 살아서 꿈결이요 저승 가면 십만팔천리 밖이여. 이 작자야 뭬져라 뭬져라 하지를 말어. 용왕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말이여".

"앗따 새 신랑 행세하지 말어. 헌 서방에 헌 계집이 제격이여. 그러나 저러나 해주(海州)로 가는 데 누구한테 전할 것 없나?"

"없으이. 잘 다녀오시게".

"아암 작별 인사가 제법이시네. 어디 건너가나?"

"나야 큰 연평도 작은 연평도 두루 다녀 올 테여".

안개가 진하였다. 안개 속으로 자취가 사라지며 뱃사람들의 이 배 저 배의 대화가 끝나면 한동안 물소리도 잠잠해져서 적막하게 된다.

인담이 제물포로 떠날 배는 소금배여서 소금을 다 퍼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본디 사람을 실어 날으는 일은 궁상맞다하여 선장이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전포나루 술청의 늙은 주모가 불법(佛法)신행이 독실하여 인담의 뱃길을 뗴를 쓰다시피 주선한 것이다.

선장은 수염 밖에는 생각이 날 수 없을만큼 얼굴이 그 푸짐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게다가 무척이나 살찐 굉이 거북하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둔탁한 동작이었고 말 한 마디도 고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척스러운 사공들을 잘 거느리고 있었다.

소금배가 소금을 다 퍼내고 그 빈 선창(船倉)에 예성강일대의 잡곡 섬을 실었다. 그런 다음 인담과 몇몇 사람을 태웠다.

두 폭 황포의 돛이 오르자 마치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돛은 제법 임신한 배처럼 바람을 푸짐하게 안고 떠나는 것이었다.

요즘 부쩍 많아진 왜(倭)의 해적선이나 청나라 수적의 배들이 서해 무인도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잦았던 터라 이 소금배의 사공들도 불법으로 구한 화승총 두어 자루와 그밖의 칼도 소장하고 있는 터였다.

선장도 그의 체구와는 달리 매우 간절한 주력(呪力)을 하는 신행자(信行者)였다. 그래서 전포나루의 주모와 사이가 각별한 것인지 모른다.

그가 말하였다. "육지에서는 유건(儒巾)을 쓰지만 이 물 위에서는 관음(觀音)이 제일이라오. 스님."

인담이 입을 열지 않는 대신 고개를 정중히 끄덕이며 두손바닥을 모았다.

배가 난바다에 나오자 물결이 한결 유연해지는 것이었다. 물냄새도 훨씬 진하였다.

그 배가 다행히 강화도 밖의 몇개 섬을 지나는 동안 해적을 만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서풍이 불어서 영종도 작약도에 이르기까지는 속력을 더하였다.

제물포의 썩은 생선 냄새가 자욱한 개펄에 내리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멀미가 금방 사라져서 걸음이 가벼웠다.

벌써 해가 바다의 수평선에 닿으려고 팍 기울어져 있었다. 한동안의 뒤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해 위의 하늘 전체가 새빨간 빛깔의 극채색(極彩色)으로 차 있는 장엄한 낙조로 일변하는 것이었다.

"꼭 무육도의 낙조와 같아라"라고 인담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생각하였다. 저 거대한 하늘의 낙조를 바라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낙조 뒤의 보이지 않는 바를 보는 일(觀)은 쉽지 않을 터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진대 그 세계는 영영 없는 세계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일 뿐 그밖의 것은 헛실이 아니라고 여겨 마땅할 것이다.

"참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한칸방과 다를 바 없어라"라고 인담은 또 중얼거렸다.

제물포에서는 두 시각을 지나서 밤중이 되어서야 다른 물화(物貨)를 포구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실은 뒤 바로 떠났다.

군창포(群倉浦—群山浦)로 가는 길인데 도중의 당진(唐津)에서 내리거나 태안반도의 적당한 어촌에서 정박하면 어촌의 조각배가 달려오게 하여 인담을 내려주게 되어 있다.

밤 바다는 사공 조차도 온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춥다. 그래서 인담은 어떤 남자(娘子) 곁에서 바짝 몸이 닿도록 좁은 선창 안에서 견디어내야 하였다.

그러고 보니 그 낭자는 이따금 울고 난 뒤의 훌쩍거림을 간간히 잇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는 길이오?"

하고 인담은 그녀를 달랠 셈으로 말을 시켰다.

"아버님께서 저를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선장님한테요".

"무슨 사연이 있는게로군. 여기 가만히 있도록 하오".

하고 인담이 선장이 한잠 자는 곳으로 옮겨갔다.

선장은 토막토막 잠을 청하고 나서 잠을 깨어 다시 뱃전의 이물과 고물따위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것은 숙직의 사공을 감독하는 역할이기도 하였다.

한밤중 3경(三更) 4경인데도 배는 파도들의 뒤척임을 타고 가장 노련한 항행(航行)으로 남으로 남으로 가고 있었다.

"덕적도(德積島)는 지났나?"

"진작 지났습니다요".

이런 선장과 사공 사이의 말뒤에는 다시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 뿐이었다.

## "2백냥에 팔려 온 낭자지요"···"소승에게 맡기시죠"

인담이 선장 앞에 섰다.

"저 낭자는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스님께서 마누라로 삼고 싶소? 허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럼 수도 있다?"

"어디로 보냅니까?"

"실은 저 계집아이의 아버지가 나에게 빚을 져서 빚 대신 딸을 팔아버린 셈입니다만. 단돈 2백냥에 ···."

인담이 말하였다.

"소승이 2백냥을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안에 탁발(托鉢)을 한 뒤 갚겠습니다".

"떠도는 스님을 어찌 믿겠오"하고 선장이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내어 웃었다.

"소승이 제물포의 객주(客主)에게 돈을 맡겨놓겠습니다. 꼭 1년 뒤에".

선장은 말이 없었다. 농담 반이 진담으로 되는 것이 엉뚱한 느낌이었다.

배는 훨씬 속도를 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장이 말하였다. "저 계집애는 실성(失性)하였오. 어느 때는 양전하나 한번 딴 정신이 들면 마구 날뛰는 망아지랍니다. 그래서 군창포에 선 무당이나 설미친 년놈을 바로잡는 영험(靈驗)있는 노인이 있어 그리로 데려가는 것이오 ···. 다행히 거기서 낮게 되면 내친으로라도 삼을까 하는데 ···."

"선장 처사(處士)님! 제발 저 낭자를 소승에게 맡기시오. 소승이 꼭 저 낭자를 신령스럽게 만들 작정입니다".

선장의 표정을 어둠 속에서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런 선장에 대고 인담은 집요하였다.

"소승의 뜻대로 하도록 말미를 주시오".

드디어 선장의 뜻을 급했다. 마치 인담이 단단한 줄기의 대나무를 뿔길에 지나치지도 않고 열치기도 아니게 대어 그 대나무를 자연스럽게 휘어내는 것같은 기교를 다한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라면 데려가시오. 하기야 스님과 짝이 되면 동남동녀(童男童女) 몇놈은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나무관세음보살".

새벽이었다. 충청도 당진나루에서 인담은 검붉이 묻은 머리의 낭자를 데리고 내렸다.

"나를 따라오게".

" ·····"

낭자는 보퉁이 하나 가슴에 안고 짧은 댕기머리로 인담의 뒤를 따랐다. 댕기머리가 길지 않은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술값으로 딸의 머리를 잘라 팔았기 때문이었다. 아비는 건달이었고 딸은 효녀였다. 그 효녀가 끝내 팔린 몸이 되었다가 한 승려를 만나 전전(輾轉)하는 삶의 무대에 오른 것이다.당진에서 서산 몽산포까지 황톳길을 내내 걸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었다. 낭자는 걸음을 걸어본 일이 별로 없어서 인담의 휘영청 달밤의 달빛 같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 속도를 따르지 못한 것이다.

다음날 두 사람은 몽산포 남쪽의 어리굴 개펄에서 무육도 왕래의 헌 낙배를 탔다. 그러니까 그 배의 소유를 말할진대 인담의 것이었다.

"혹시 ··· 나를 두려워하지 말구려"

" ··· "

"낭자 이름을 알고 싶은데".

"우녀(雨女)라 합니다".

"우녀라!"

"제가 태어날 무렵 오랜 가뭄 때문에 비를 기다렸는 데 제가 태어나서 우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인가".

"한갓 청개구리도 울면 비가 오는 법인데 사람으로 태어나 울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 저를 내버릴까 하다가 키웠다 합니다".

"기구한 시절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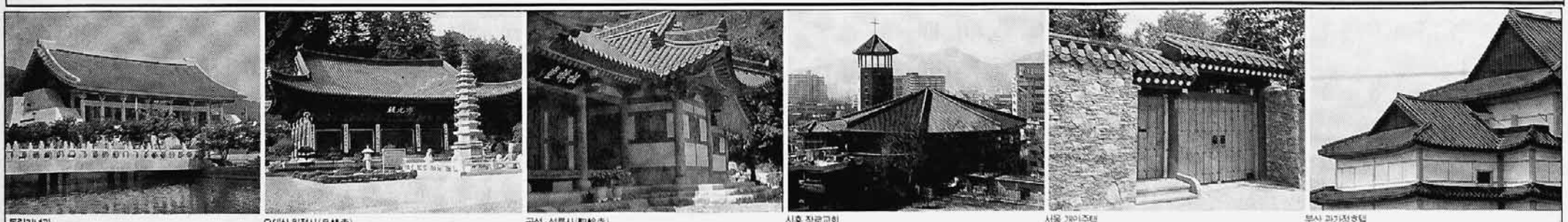
"송도 밖의 두메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육송이 귀한 줄 모르는 세월이라".

배가 무육도에 닿자 인담은 낭자보다 그가 애지중지 지니고 온 임춘의 〈서하문집〉에 더 마음을 썼다. 아니 그것과 함께 〈수미행〉 책자도 마찬가지였다.

무덕대고 낭자더러 갈대지붕 밑의 정지에 들어가 마음대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보라고 방치하였다. 여자란 본능적으로 제 입에 바로 익숙해지는 것인지 몰랐다.

그동안 인담은 옷도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책 대질과 〈수미행〉을 넘겨보며 한나절을 보냈다.

독립기념관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곡성 성륜사(聖輪寺) 시흥 장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가정호텔

#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金屋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독립기념관, 오대산 월정사, 구례 화엄사 연기암, 하동 칠불사, 부산 관가정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복천사, 상주 원적사, 상주 극락정사, 곡성 성륜사, 시흥 장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강천사, 대구 관암사, 태백 현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홍씨제기, 성남 한국도로공사, 이리 동일유업, 대구 대구여중, 서울 화계사

# "특별대우" 부담 … 자기 확신 가져야

## 수능시험 앞으로 14일 — 전현수씨의 도움말



◇ 전문가들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14일 앞으로 다가 왔다. 지난 일년 가까이 담사자인 수험생은 물론이고 부모, 학교선생님이 하나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한 것이 11월 23일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된다.

이럴 때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신상태가 너무 풀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학습능력이 저하된다. 여유있으면서도 몰두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되어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잠도 마찬가지다. 많이 자면 안되지만 정신적, 신체적인 피로가 풀릴 수 있는 정도로는 자야 한다. 수험생들이 불안하다 보니 공부시간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잠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낮에 공부한 것을 우리의 머리 속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 시험은 알 것을 알면 합격할 수 있지 몇시간 공부했나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어떤 학생은 공부시간 수만 채우고 뭔가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위안을 삼는데 몽롱한 머리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부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잘 돌아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해서는 안된다. 시험은 다 안 맞아도 합격한다. 어차피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내가 공부한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만큼은 했다고 하는 자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공부한 것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수험생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대우"를 하거나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에는 서운하고 불안해진다고 한다.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떤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잘 모르겠다면 수험생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

공부는 마음이 편안하고 주위에 신경쓰이는 일이 없을 때 제일 잘 된다. 수험생을 둔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기도를 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불안하게 되면 그것이 수험생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기도로서 가라앉고 차분해지면 수험생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가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 나의 체험담

### 매일 새벽 화계사 찾은 조명숙 보살



"무조건 공부하라고 채근하기보다는 하루 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했어요"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로 바뀌어진 입시제도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들고 혼란했던 지난해 대학입시때 아들 세호군을 무사히 대학에 합격시킨 조명숙씨의 말이다.

체력이 약한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보약도 많이 먹였지만 다른 아이들이 입을 마치고 온 세호가 엄마를 따라 절에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엄마와 함께 부처님 전에 삼배를 드리고 온 세호는 그후 본고사를 치를때까지 여러차례 화계사를 찾았고 조명숙씨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다.

세호군의 합격소식을 접하던날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때였다. "새벽 2시에 세호가 갑자기 절에 가자는 거예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합격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했다지 뭐에요" 그래서 새벽2시에 온가족이 화계사를 찾아 합격의 기쁨을 부처님과 함께 했다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세호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큰도움이 되었던것 같아요. 모든것이 부처님 은덕입니다"라고 말하는 조명숙씨의 아들 김세호군은 현재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다.

### 좁은문 힘차게 통과 고려대 이병호 군



"꼭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스산해진 가을바람이 수학능력시험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직 신입생티를 벗지못한듯 수줍어하는 이병호군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1학년 새내기다.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솔직히 시험날짜가 가까워오면 욜수록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지난해 입시를 앞둔 당시의 심정을 병호군은 이렇게 설명했다.

국어, 영어, 수학, 제2외국어등 해야할 공부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기만하고 지금 고3수험생들도 자신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병호군은 말한다.

95학년도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지금 마무리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수험생 스스로가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병호군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병호군은 가끔 집중이 안될때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험일이 가까웠다고 하루종일 도서관에 앉아 책과 씨름하기보다는 평소 자신의 상태를 시험당일까지 그대로 유지했던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병호군은 "수십만에 이르는 대입수험생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며 예비 95학번 후배들의 건투를 빌었다.

고등학교때부터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중 고려대입학과 함께 불교학생회에 가입, 써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불자대학생 이병호군은 하루빨리 '선배님' 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귀여운 후배들을 맞고 싶다며 미소지었다. 〈이은자 기자〉

## "공부 채근보다 마음기도로"

## "내인생의 주인은 나" 최선

만 화

# 法法句句經經

○대구(對句)의 장○

진실을
진실인줄
알때가...



이 향 원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입, $SF_6$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용접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권프 감속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써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분산형 제어 시스템,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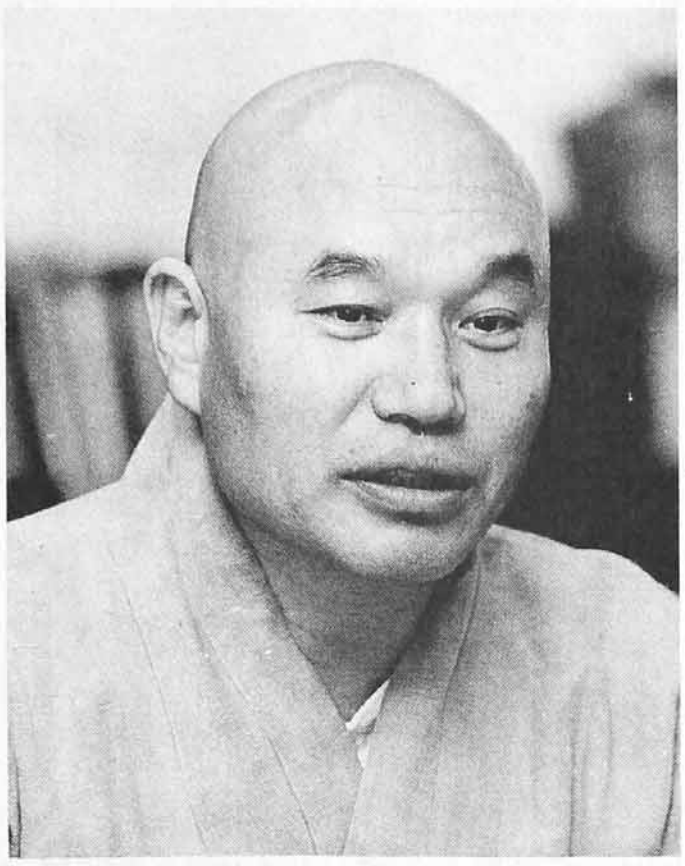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 "모래알 세듯 30여년 몰두"

## 이젠 해설 달기 작업···시대에 맞는 역경 거듭 돼야

**저자와의 만남**

### 80 화엄경 완역·출간한 무비스님



◇80 화엄경을 완역·편찬한 무비스님은 "진정한 역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생동하는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조건 읽어보길 권합니다. 특히 저의 이번 화엄경 완역은 전부 한글로 이루어졌으니 뜻을 짚어보며 읽지도 말고 무조건 읽어보길 권합니다. 자주 책을 접하지 않던 이도 열흘이면 일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열흘만 투자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있는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인내를 갖고 읽다보면 생애 최고의 가치있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최근 80권 화엄경을 완역, 민족사에서 전12권으로 펴낸 무비스님은 큰 일을 끝내고 난 후의 답답함과 두려움 송구스러움을 억지로 접어두고 독자들에게 무조건 일독을 권하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무비스님의 이런 말뜻에는 '경전은 어렵다'라든지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라는 경외심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선입관을 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먹고 입고 보고 느끼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곧 화엄이며, 화엄경의 세계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들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라는 경책의 뜻도 담고 있다.

### 일상생활이 화엄세계

흔히 화엄경은 경전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40품 80권이라는 방대한 양도 그렇거니와 장황하고 웅대한 교설에 당황하고 만다.

법회 때마다 암송하는 삼귀의가 화엄경 정행품에 닫겨 있고, 불교의 핵심교리인 사성제 또한 이 경전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불자도 그리 흔지 않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화엄사상은 불교와 민족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을 정도로 우리들 사상과 삶속에 깊이 배어있는 경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인 고은은 화엄경을 일컬어 '우주의 경전'이며, 무명과 어둠을 눈부시게 밝히는 '태양의 경전'이라고 이름 붙였다.

완역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무비스님이 63년 해인사 강원에서 화엄경을 접하고 '웬지 모르게 좋아' 화엄경 공부에 몰두, 탄허스님으로부터 화엄학의 전강을 이어받았으니 30여년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역경연수원에서 탄허스님 번역 화엄경을 펴낼 때 교열과 출판과정에 참여해 더욱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화엄사 구층암에 칩거하며 사경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용성 운허 탄허스님의 번역본을 수정.보완해 많은 사람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는 화엄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꼈다.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84년부터였다.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것은 청량스님과 통현장자의 견해를 참고했지만, 역경 분야의 새로운 시도로써 스님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다.

### 번역은 생동하는 작업

이 책이 지금까지의 번역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짧게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목을 달아준 것이다. 단락별로 나누어 방대한 화엄경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번역·편찬의 역점이 두어진 것이다. 경전을 한글로 옮겼다고 해서 모두 번역이 될 수 없다는 무비스님의 역경관이 스며있는 부분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과 의식속에 들어와 생동하는 그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야 진정한 경전의 번역입니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때, 경전 또한 최소한 3년마다 새로운 의식과 언어생활에 알맞도록 거듭해서 번역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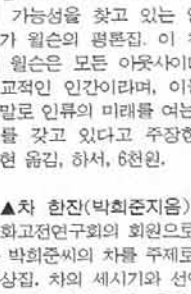
따라서 스님에게 있어 화엄경 완역.편찬은 또다른 시작일 뿐이다. 무비스님은 이미 완역을 끝낸 3개월 전부터 해설을 붙이는 일에 매달렸다. 원문과 번역, 여기에 해설을 곁들인 명실상부한 화엄경 완역관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다시 화엄의 푸른 바다로 헤엄쳐 들어갔다. 그러면서 화두처럼 한말씀 던진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센다는 말이 있습니다. 짧교를 공부하는 일이 그렇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세는 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다는 더 넓고 모래는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참으로 오래오래 세고 싶습니다."

〈정성운 기자〉

## 새로 나온 책

▲무신론과 유신론(히사마쯔 신이찌 외 지음)=대원정사의 기획시리즈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제4권으로 양대종교의 차이점을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제1부 '무신론'에서는 포스터모던 시대의 종교의 궁극적 입장을 조명하고 있으며, 제2부는 무신론적 깨달음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공감과 반론을 실었다. 정병조 외 옮김, 대원정사, 9천5백원.




▲혼자 살기엔 너무 쓸쓸한 세상(황정원 지음)=시인 황정원씨의 에세이집.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의 여정에는 여러 어려운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책만드는집, 5천5백원.

▲월정사의 전나무숲길(일지 지음)=불교인문주의자의 정신적 편력을 담은 산문집. '세상을 불교적인 사유방법으로 밖에 바라볼줄 모르는' 글쓴이가 광활한 경전의 세계를 횡단하며 문학적인 감수성과 철학적인 사색으로 일궈낸 방황과 회귀를 서술하고 있다. 문학동네, 5천원.




▲종교와 반항인(클린 윌슨 지음)=종교와 아웃사이더를 연결시켜 현대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속에서 참된 종교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영국작가 윌슨의 평론집. 이 책에서 윌슨은 모든 아웃사이더는 종교적인 인간이라며,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현 옮김, 하서, 6천원.

▲차 한잔(박희준지음)=차문화고전연구회의 회원으로 있는 박희준씨의 차를 주제로 한 수상집. 차의 세시기와 선인들과 차에 얽힌 일화, 우리나라와 중국차를 소개하고 있다. 신어림, 6천8백원.

## 명사추천 불서100선

### 금강경

# "자신을 기쁘고 자유롭게 하는 길"



이 남 곡 〈불교사회연구소장〉

한 사람이 엮어나가는 인생행로는 그가 지니고 태어난 업과 그가 맺는 인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문명사회에서는 사람과의 만남 못지 않게 책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좋은 친구가 평생의 길동무인 것처럼, 좋은 책은 평생의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해방동이인 내가 살아온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기'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숱한 만남과 헤어짐, 성취와 좌절도 이러한 시절인연과 내 자신의 업이 교호작용한 과정이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금은 서슴없이 〈금강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금강경을 만난 것은 대학 2학년 때이다. 당시는 세계완성과 자기완성에 대한 젊은이 다운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개인적 야심들이 서로 섞여 자신의 나갈 길에 대해 대단히 고뇌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 기억으로는 지질도 형편없는 팜플렛으로 된 금강경 주해서를 읽고 '아! 바로 이 길이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었다. 물론 당시는 사회변혁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보살'은 이상형의 인간이었고, 진정한 보살상을 금강경에서 보았던 것이다.

### 사회변혁과 자기구원의 이상형 제시

이와같이 무량하고 무수하며 무변한 중생을 멸도하였더라도, 실은 중생으로서 멸도를 얻는 자는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고 하니,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을 지닌다고 하면 바로 보살이 아니니라.

그 후 불교와 떠나있던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불교와 만나게 한 것도 젊은 시절 당시는 너무 반복해서 지루할 정도로 느꼈던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영혼 속 깊숙히 각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0대 후반에 와서 그동안 사회구원에 대한 사고와 방법의 근본적 한계를 절감하고, 여러가지 입장과 사고방식에 문을 열면서 과학과 종교의 상호관계, 현대문명에서의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할 때 금강경은 또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현대과학이 최첨단의 성과로 조립한 세계의 모습이 일찍이 금강경이 설파한 내용에 근접하는 것은 이러한 모색에 용기와 신념을 주기에 족한 것이었다.

더 나이가 들면서는 내 나름대로의 초심(初心)을 한때는 사회변혁, 그후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목표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자신은 자유롭지 못한가에 생각이 많이 미치게 되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사량분별하며 논리를 구성하려는 노력속에 역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새삼 느끼면서, 이제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데서 오는 안온함과 기쁨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의식개혁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높고, 앞으로 갈수록 문명전환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정화하며,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금강경과 함께 이 길을 향해 조금씩이나마 나가보려한다.

### 구산선사 자료모집 문집편찬위

구산선사 문집편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문집에 실릴 상당법문 수기설법 편지글 시서 사진을 비롯한 문집간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문집은 전10권 내외로 발간된다. 올해 말 상당법문 첫 권을 시작으로 계속 펴낼 예정이다.

02)738-7853, 0661)53-2130.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편자 | 출 판 사 | 비고 |
|---|---|---|---|---|
| 1 | 도(道) | 김정빈 | 금수레 | 소설 |
| 2 | 불교의 체계적 이해 | 고익진 | 새터 | 불교학 |
| 3 | 돈황본 육조단경 | 성철 | 장경각 | 법어 |
| 4 | 석가모니 | 정태법 외 | 교학사 | 아동 |
| 5 | 구사학 | 김동화 | 보련각 | 불교학 |
| 6 |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 | 동봉 | 고려원미디어 | 수상 |
| 7 | 무문관 | 무문혜개 | 경서원 | 선록 |
| 8 |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 | 고은 | 동쪽나라 | 아동 |
| 9 | 무비풀이 천수경 | 무비 | 불일 | 경전 |
| 10 | 부처님 말씀 | 성열 | 법등 | 경전 |

구입문의:(02)737-0695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이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야기 한국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중고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간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누·가·불·교·를·어·렵·다·고·만·하·는·가?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5,000원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신국판 / 242면 / 값4,500원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5,000원
경봉대선사의 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경봉대선사.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이 시대 최고의 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19면 / 값 4,300원
피부미용의 동의보감
한방피부미용
한의학 박사 송점식 지음
고운 피부,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자 송점식 박사는 고운 피부를 가꾸면서
불로장생의 삶을 이루는 비결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명쾌하게 수록했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기미·여드름·비만증·대머리·흰머리 등
36가지 피부 트러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효험이 큰
325가지 민간요법과 처방전을
자신의 진료경험을 토대로 선별, 집대성했다.
신국판 / 388면 / 값 6,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TEL:587-6612·6613 FAX:586-9078



## 신심으로 작품빚는 늦깎이 조각가

### 불미전 금상받은 한 기 늠씨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부철한 신행의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의 뜨거움이 전해져 오는걸 느낍니다."

10월초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구룡사에서 연장전을 갖고 있는 조각가 한기늠씨에게 관람객들은 이렇게 작품감상의 소감을 털어 놓았다. '구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한씨의 첫 개인전으로 불교인에게뿐만 아니라 타종교인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켜 11월 25일까지 구룡사에서 연장전을 갖는다. 또 26일부터 30일까지는 부산 국제문화센터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제 15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서 구도1.2로 금상을 수상한 만학의 조각가 한기늠씨. 한씨는 서른일곱의 늦은 나이에 조각에 눈을 떴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마다하고 세계 조각인들의 교육현장인 이태리 까라라국립미술대학 조각과에 유학중이다.

"이태리 피에트라산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매일같이 108배와 천수경을 외면서 닦는 「마음닦기 수행」이 이번 전시회의 작품을 구상하고 형상화시키게 했어요."

한씨의 신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조각품들은 대리석과 브론즈를 이용한 것으로 그의 인상을 대변해 주는듯 하다. 문학소녀처럼 한없이 여리고 섬세한 일면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당차고 분명하다.

한씨는 이태리에서의 학업에 만족치 않고 내년 3월 영국왕립미술학교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또 한국불교의 민간홍보사절로서 세계 곳곳에 불교를 알리고, 경주에 국제불교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조각을 하면서 정진을 멈추지 않는 한씨는 12월 5일 피에트산트라로 돌아가 내년 10월경 피렌체에서 「한기늠 초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선〉

# 탈춤 속 스님 "정토신앙의 전법사"

## 「불교와 민속」 관련 세미나 잇따라



◇탈춤에 등장하는 스님은 민중의 애환을 함께하는 정토신앙의 전법사라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 한국불교문학사 연구회

「불교와 민속」의 유기적 관계를 도출해 내는 학술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한국불교문학사 연구회(회장·홍기삼)는 지난 4일 동국대에서 「한국불교 민속학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홍윤식교수(동국대)가 「불교민속의 범위와 성격」 오출세교수(동국대)가 「불교의 헌공의례와 민속」 윤광봉교수(대전대)가 「한국불교와 가면극의 주제양식」 권무영교수(인천시립대)가 「한국불교 민속론의 현대적 과제」 이창식교수(한성대)가 「불교민속과 세시풍속」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최순열교수(동국대)의 사회로 김태곤(경희대)교수, 김의숙(강원대)교수, 남근우(한림대)교수가 불교와 민속의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홍윤식교수는 불교민속의 개념을 설정 "불교가 공간적 전파와 시간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수용되어져 생활상에 활동되어진 문화현상"이라고 제시했다. 이에따라 홍교수는 「불교민속」과 「민속불교」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교민속은 재래 개념을 다양하게 수용했으나 불교적 핵심을 결여시키지 않은 반면 민속불교는 불교의 체계와 신앙의 핵심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오출세교수는 불교에서의 헌공의례는 민중들의 소망이 담긴 갖가지 민속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논지 아래 "헌공의례는 민중들의 의식 속에 있는 불교의 진실된 생명정신과 민간의 풍속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가면극 가운데 등장되는 스님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밝힌 윤광봉교수는 "가면극은 속가를 방문한 중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기존의 사람들과의 갈등의식에서 빚어지는 교훈극"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윤교수는 대방 놀이판에 등장하는 상좌승은 놀이판을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민중에게 복을 주려는 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자칫 가면극(탈춤마당)에 등장하는 승려의 언행이 속되게 표출되고 있어 「타락승」으로 비쳐지는데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윤교수는 "가면극은 억압받는 민중과 현실에 절망한 사람들이 바라는 정토신앙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래서 승려는 민중과의 허물없는 교감을 위해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세시 풍속에 깃든 불교적 의의를 탐구한 이창식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세시풍속의 양상과 불교적 성격, 불교 세시풍속의 유형등을 세부적으로 밝혔다. 이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불교민속의 연구방향이 보다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자리잡아 가야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 민속학회 전국대회

민속학회가 23회째 가진 민속학 전국대회는 지난달 29일 논산 건양대학 경상관에서 열렸다. 천신사상, 조상숭배사상 등 민간 생활에 정착된 정신적 양상과 도교, 불교, 풍수지리등 사상적 근간을 주내용으로 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권무영교수가 「민속불교사상」부분의 발표자로 나섰다.

권교수는 이 학술회의에서 논문 「팔관연등의 사상」을 발표했다.

"호국불교니 호왕불교니 하던 지금까지의 한국불교에 대한 교과서적인 단정을 연등회와 팔관회를 통해 검증 하려 했다"고 밝힌 권교수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민간과 왕권과의 유기적 체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교수는 정월에서 동지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고려대의 「등불」의례가 갖는 민간차원의 의의들을 세밀히 분석하기도 했다.

이 두 학술회의 의에도 한국역사 민속학회도 지난달 2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술회의를 가졌다. (관련기사 6면)

불교와 민속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민간과 불교, 왕권과 불교로 나뉘어 설정된 한국불교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 관계 학자들의 의견이다.

〈임연태 기자〉

## 원각사지 10층석탑 특별전

### 사진·탁본, 연말까지 덕수궁서
### 연혁·구성등 매주 토요일 강연도



◇견우가 탄 치성광여래의 소재법회(3층남면)

궁중유물전시관(관장 이명희)은 개관 두돌과 서울정도 6백년맞이 특별전을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오전9시~오후5시,매주 월 휴관)두달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최근 원각사지탑(국보 제2호) 훼손과 그로인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원각사지탑의 조각들이 가까이서 살펴보기에는 너무 높고 조각이 닳아져, 일일이 1백5십면에 달하는 조각을 탁본한 자료와 흑백 칼라사진 자료가 전시됐다.

궁중유물전시관은 2년전부터 탁본자료를 준비해 왔으며, 원각사지탑의 2분의 1크기의 축소판 원각사지탑 조성도 계획해 왔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이 탑의 조성에는 약 4억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 부족으로 아직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탑이 완성될 경우 고려 경천사지탑을 모방한 조선의 원각사지탑에 이어, 또 한차례의 '모방을 통한 창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교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궁중유물전시관은 또 서울시와 궁중문화회의 후원으로 특별전시 기간동안 원각사지탑에 대한 토요특별강연회(4회)를 가지며, 도록(圖錄), 팜프렛, 강연자료집, 설명서, 비디오 상영등의 도움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강연회는 5일 '원각사 연혁'(황수영 전동국대 총장), 19일 '원각사탑 조각내용'(홍윤식 동국대교수), 12월3일 '원각사탑 건축특징'(김정기 한림대교수), 12월17일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정영호 한국교원대교수)등의 내용으로 오후 2시부터 3시반까지 궁중유물전시관 강당에서 열린다.

〈경〉

## 불심시심 〈3〉

### 양지에는 꽃 음지에는 눈

桃李芳菲一色春 복숭아, 오얏꽃 한 빛의 봄
도리방비일색춘

南家解笑北家嚬 양지에선 웃지만 음지에선 찡그려
남가해소북가빈

揚杷玉碎金叉下 양귀비 백옥 같은 몸 창 아래 쓰러지니
양파옥쇄금과하

傍有回頭啓齒人 옆에서는 고개 돌려 웃는 이 있다
방유회두계치인

이 시는 청매(靑梅)선사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라(非心非佛)는데 대해서 읊은 시이다. 시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모든 것이 있는 현실 그대로임을 말하는 듯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一切唯心造)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대상의 경계 없이야 일어날 수 있는가. 꽃이 피었으니 보는 이의 얼굴에도 꽃 못지 않은 화사한 얼굴빛을 띠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상이 중요하지만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이 없다면 얼굴빛의 웃음이 있을 수 없다면, 이는 대상보다는 마음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있는 실상의 진여한 참모습에는 마음이나 대상 물을 모두 여의어야 하겠다. 이것이 지난 주에 보았던 두 글이 없음이리라.

봄이 되어 양지마을에는 이미 꽃이 피었으니 봄이 왔다고 기뻐해 마지 않겠지만 음지 마을의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다. 양지마을의 따스함이 부럽다 못하여 자신의 삶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날짜로서의 시간이야 다 같을지 모르지만 삶의 처지에 있어서 느끼는 시간에는 매우 길은 거리가 있다. 이것이 현실의 진리이니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참의 실상이다.

천하의 미인인 양귀비가 그의 미모에 의하여 그르쳐진 나라끝 때문에 일어난 반군을 진압하고 그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마외관에서 이 미인을 처형살해할 때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미모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아야 했던 한 무리의 여인은 통쾌한 웃음을 자아냈을 것이니, 한 사실에서 엇갈리는 기쁨 슬픔이란 그가 처한 상황의 현실이지 그것을 느끼게 되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하니 이것이 마음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나'라고 느껴야 하는 나의 실체, 바로 그것인가.

## 오승희 독창회 …「염주」등 공연

### 23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오승희씨

소프라노 오승희씨의 독창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경원대와 백제예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오승희씨는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와 슈만 그리고 구노의 주옥같은 곡들을 들려준다. 또 「염주」「무곡」「할매」등도 들려주는 오씨는 그간 불교음악에 몰두해 있다가 클래식곡을 발표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피아노 반주는 김도실(경희대강사)씨가 맡는다.

## 성파 시조문학상

### 주광식·김필곤씨

제11회 성파시조문학상에 주광식씨와 김필곤씨가 선정됐다.

주광식씨는 부산교대를 나와 동아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부산 시조문학회 「법씨」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 문인협회 이사겸 시조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필곤씨는 샘터 시조상에 당선한 이후 시동인지 「시세계」를 창간하고 〈겨울묵시론〉등의 시조집을 냈다. 현재는 동다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29일에 부산 지역 문인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됐다.

### 전진옥·신광철씨 당선

제5회 삼오문학상

제15회 삼오문학상공모에서 전진옥씨의 시 「촛불」과 신광철씨의 시 「탄생, 그 언저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초에 갖게된다.

〈문의: 308-9520〉

## 공옥진 소리춤판

### 27일 부산 KBS홀

공옥진 소리춤판이 부산 남구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오는 27일 오후2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불우청소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이날 공연은 공옥진씨의 구성진 소리와 병신춤이 소개될 예정이다.

〈문의:051) 644-1395〉

## 토속세계의 정신탐구

### 이점원 조각전

나무등걸과 나무상(床)등을 소재로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시킨 이점원 조각전이 3일부터 12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736-4804)에서 열린다.

「위로 오르면 길이 있소」「생남발원」등 토속적 의식세계를 그속에 내재된 정신 탐구로 표현한 이씨의 작품들은 소재의 독특한 사용이 눈길을 끈다.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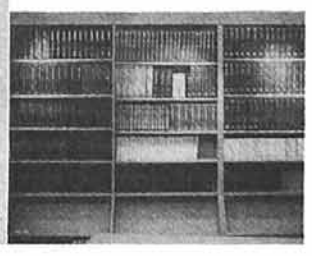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서점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8, 84, 159, 391, 588 - 2번

불교텔리비전

# 불자들 호응 속 개국 행로 "쾌청"

## 주식공모 성황 · 제작 순조 · 방영계획도 수립

도필선 기자

불교텔리비전(대표이사 · 태응)이 주주공모, 프로그램 제작, 방영프로그램 및 시간을 확정 하는 등 내년 3월1일 개국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마포구 마포동 금호전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스튜디오 공사착공, 방송장비 발주, 21명의 신규사원을 채용 하는 등 불교TV가 개국을 향한 행보에 속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31일로 100억원조성 주주공모를 마쳤다.

불교TV의 한 관계자는 마감된 청약액은 70여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00억원 조성에는 못 미치는 성과였지만 불자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동참으로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9월10일부터 시작된 불자주주공모는 일반불자들의 참여 또한 눈에 띄게 많아서 앞으로 불교TV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해외교포 불자들의 최신장비 기증과 주주공모의 동참은 불교TV 식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다.

불교TV 주주가 된 불자는 12월말 이내에 주주확인통지를 받게되고, 주식에 대해서는 흑자 운영시 이윤에 따라 주식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 또, 불교TV 방송행사에 우선 참여 문화센터 운영시 강좌수강의 특전 관람료 징수 사절 무료입장등 다양한 특전을 누리게 된다.

1993년 7월15일 프로그램공급업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한 불교TV는 1995년 3월1일 개국특집을 마련, "안녕하십니까? 불교텔리비전입니다"로 불교TV 첫방송을 한다. 개국 특집프로그램은 3월5일까지 이어지고, 3월6일부터는 매일 · 주간편성계획에 의해 1일 10시간, 주간 총 70시간으로 방송된다.

개국특집 방송에는 「일본속의 한국불교」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등 자체제작 다큐멘터리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비디오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개봉된 「Heart of Tibet 달라이라마」 「암코르와트」 「네팔-신들의 땅」 등 감동의 영화가 방영되고, 그외에도 다양한 개국축하 특집이 방송될 예정이다.

개국특집이후의 방송은 오전 10시 애국가, 삼귀의, 오계를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의 낮방송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의 저녁방송으로 이뤄진다.

매일 · 주간프로그램은 본격적인 교리강좌 프로그램 「알기 쉬운 교리강좌」 사찰음식의 보존과 보급, 대중건강의 생활화를 위한 「비법공개! 절음식」 국내외 다큐멘터리로 불교의 세계를 소개하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로 엮는 「자비의 천수천안」 불교계의 현안이나 불자들의 관심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촛점 32」로 구성돼 방송된다. 또, 불교TV 사찰대항 가족대항 교리 퀴즈프로그램 「퀴즈특집! 이 뭐꼬?」 어린이대상 「만화극장 은하철도 999」등 교리강좌에서부터 쇼오락까지 다양하고도 푸짐하게 불자를 한마음으로 묶는데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불교TV 편성제작국은 이미 당현장, 구하산전기, 서유기등 드라마119편, 영화 4편, 대당서역기, 캔지스 티벳의 심장등 다큐멘터리 119편을 구입해 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리 34% 신행 24% 교양 15% 문예 20% 보도정보 7%의 편성비율 아래 다양한 방송으로 불자가정 구석구석에 법향을 전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 공사와 방송장비 설치가 끝나는 11월말이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불교TV는 내년 3월의 방송개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불교TV 전직원은 불교TV의 개국공신이자 불법홍포의 선두주자라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가운데 개국의 그날까지 정진 또 정진의 발걸음을 활기차게 내딛을 것이다.



◇ 불교텔리비전 편집실의 작업관경

# "종단 발전에 앞장 다짐"

## 천태종 신도단합법회 성료

천태종 전국 신도단합법회가 10월26일에서 28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개최됐다. 천태종 총무원이 주최한 이번 단합법회는 전운덕 총무원장 주정산 감사원장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전국신도회 간부등 4백여명이 동참했다.

26일 구인사를 출발해 상원사 적멸보궁, 월정사 신흥사 문수사 등 동해안 일대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새롭게 한 참가자들은 마지막날 열과 성을 다해 종단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단합대회를 마감했다.

### 총무원 인사단행

△재무부 재정국장=정필화 스님 △교육부 문화국 과장=정원제 스님 △교무부 교무과장=양거광스님 △교육부 문화과장=곽수산스님 △종정사서실=박행화스님 △총무부 서기=이문선 · 이종래스님 △교무부 서기=정수동스님 △사회부 서기=김태진스님.

### 성룡사 24주년 법회

천태종 성룡사(주지 화산) 창건 24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3일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 삼광사 신도회 5주년

천태종 삼광사 신도회(회장 김찬권) 는 지난 1일 신도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삼광사 지관전에서 기념법요식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



**영가들의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은 지난달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탄성스님이 영가들에게 헌화 분향하고 있다.

# "안방 부처님이 기다려져요"

## 3대가 불교TV 주주된 김동근의원 가족



"TV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니 환희심이 납니다." 지난 31일로 마감한 불교TV 주주공모에 3대가 동참한 김동근의원(민자당) 가족의 한결같은 말이다.

3대가 불법홍포의 주자로서 인연의 고리를 맺은 김의원의 가족은 불교방송 아침예불과 함께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김의원가족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향을 사루고 예불하는 모습은 세상을 다 감싸안을 수 있는 부처님같은 원대함을 보여준다.

부인 고화영씨는 "불교TV의 개국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불교TV 덕분에 우린 법향 가득한 불자가정이 됐죠" 라며 자랑스러워 했다.

불교계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함을 지닌 김동근의원의 가족들은 "진정한 불자의 모습으로 사는데 불교TV는 좋은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청소년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대화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바랬다.

〈선〉

# 청정수행 · 중생제도 서원

##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식 회향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지난 1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18회 합동득도 수계법회를 회향, 사미 55명 사미니 13명 등 모두 68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정보성 종정스님을 갈마사로 안덕암 승정을 전계사로 박서봉 대종사를 교수사로 실시된 이번 합동득도 수계식은 지난달 18일 입재, 득도고시등 시험과 매일 1천배 참회정진, 1보 1배정진, 기초습의, 불교사상사, 불경개설등 엄격한 교육을 통해 수계자격을 부여했다. 1일 회향식에서 박서봉 총무원장은 "계를 받고 가사를 수하였으니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제도함 뿐 아니라 중생제도와 청정한 신심배양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 태허스님 종정추대

#### 본원종 연화정사서

대한불교 본원종(총무원장 대화) 제2대 종정 권태허 대종사 추대식이 지난달 24일 평창 연화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대식에는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본원종 종도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 종정 취임을 경축했다.

### 창종 63주년 기념법회 법화종, 세계평화 기원

한국불교 법화종(총무원장 김광태)은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12층 강당에서 창종 63주년 기념 「세계불교 평화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한 외교사절과 각 종단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 보살십선계 관정불사 진각종 전국 심인당서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지광)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 전국의 심인당을 대상으로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한다. 각해 대종사를 증명으로 지광대정사를 전계아사리로 일정대정사를 갈마아사리로 도촌대정사를 교수아사리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관정불사는 △14일 오후 1시 부산 탑주심인당 △15일 오후1시 대구 희락심인당 △16일 오후 1시 범석심인당에서 봉행된다.

###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 운동본부(본부장 혜일)는 2차 환경보존행사를 지난 2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내 11개 심인당이 연합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오물등 쓰레기 수거와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 지역 불교발전에 기여

## 제주불교협 창립 · · · 회장 중원스님

제주불교협의회(회장 · 중원)가 지난달 29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불자들간의 상호친목및 제주불교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창립된 제주불교협의회는 지역불교 위상정립과 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협의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다.

제주불교협의회는 도내 각 사암 주지스님과 신행단체 대표를 이사로 선임키로 하는 등 시, 군, 면 단위로 지부와 지회를 운영, 체계적인 조직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제주불교협의회는 초대회장에 김중원 조계종 관음사 주지, 수석부회장에 현수열 태고종 종무원장을 임명하고 재가불자로 구성된 26명의 고문 등 임원, 이사진을 확정했다.

# 청와대 부처님이 무슨 죄?

청와대내에 있는 불상이 무슨 죄가 있는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종교색」과 「청와대내의 불상」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뜻지 못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기복의 선을 넘은 불교신자가 아니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진원지가 어디든 이미 소문은 소문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목탁소리

임연태
(쥐재2부 차장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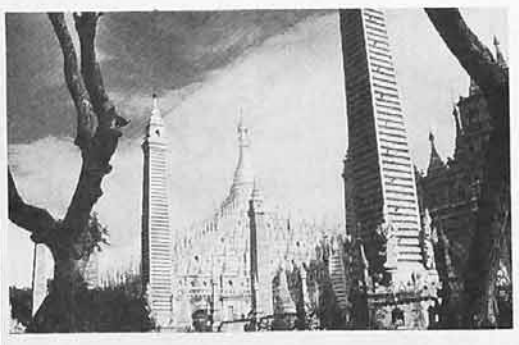
급기야 일부 외신기자들이 자국에 이같은 소문을 근거로 한 기사를 송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쯤되자 청와대측은 출입기자들에게 '불상이 제자리에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으며 몇몇 일간지는 이것을 문화재 도록에 있는 사진까지 곁들여 제법 크게 기사화 하기도 했다. 잇따른 대형 사고는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뒷산의 불상을 치워버렸기 때문이라는 발상 자체는 「대형사고」가 주는 불안감과 허탈감을 감안할 때, 또 대통령의 종교색의 강도를 생각할때 그냥 웃어넘길 것만도 아닐지 모른다.

문제는 청와대측의 자세에 있다. 청와대측은 본지의 사진촬영 협조에 대해 「군사적 이유」와 「소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며 「일간지 기자도 못찍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간지 기자가 아닌 불교전문지니까 찍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문도 일축해 버렸다.

하여간,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외신 기자의 눈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였을까하는 생각을 하면 더 그렇다. 최근 한 일간지에 서울장토교회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청와대내의 불상을 치워야 한다는 광고를 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까지나 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을 통해 불상의 건재를 간접적으로 과시한 청와대측의 태도 또한 불교인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욱 기분이 나쁜 것은 대통령의 종교에 대한 불교내부의 피해의식이 이 소문과 무슨 미묘한 관련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수미산 여행사는 열린 세상을 향한 불자 여러분들의 눈, 발, 귀가 되겠습니다.**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GOVERNMENT OF INDIA TOURIST OFFICE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55 동일빌딩 4층
TEL 02) 739-9008 FAX 02) 739-8153

＊ 효도 대잔치(제1차)

오곡이 무루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회갑, 고희를 맞이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피로연을 열어드리며 아울러 관광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회 비 : 1인당 55만원
▲ 제 1 차 : 1994년 11월 22일~11월 26일
▲ 접수마감 : 1994년 11월 15일
▲ 제 2 차 : 1994년 12월 13일~12월 17일
▲ 접수마감 : 1994년 12월 5일

日 程 表

| 일자 | 지역 | 일정 |
|---|---|---|
| 제1일 | 서 울 |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외환은행 집결 |
| | 방 콕 | 김포공항 출발,방콕 돈무앙 국제공항 도착 |
| | 파 타 야 | 파타야로 이동,호텔 투숙 |
| 제2일 | 파 타 야 | 조식 후 산호섬 관광 및 해변에서 휴식<br>오후 회갑 피로연 행사 동참 |
| 제3일 | 파 타 야 | 농눅빌리지에서 민속쇼,코끼리쇼 관람 |
| | 방 콕 | 방콕으로 귀환,황금불 사원 순례 |
| 제4일 | 방 콕 | 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세벅의 사원,왕궁,에메랄드 사원 등) |
| 제5일 | 방 콕 | 방콕 출발<br>서울 김포 국제공항 도착,해산<br>＊＊＊＊＊감사합니다＊＊＊＊＊ |

＊ 상기일정은 출발당시의 항공스케줄/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12월 23일 인도성지순례(16박 17일) 회비 220만원!**

| 여행번호 | 방문지 | 여 행 일 정 | 요금 | 출발일 11월 | 12월 | '95.1 | 2월 |
|---|---|---|---|---|---|---|---|
| INA-01 | 인도 8일 | 불교 4대성지 | 130만원 |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 | | |
| INA-02 | 인도 30일 | 인도전역.(배낭여행 및 자유여행 가능) | 195만원 | | 23 | | |
| INA-03 | 인도12일 |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릭나우-델리-방콕 | 200만원 (155만) | 8 | 13 | 10 | 28<br>3/7 |
| INA-04 | 인도15일 |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 230만원 (200만) | 18 | 2 | 6 | 10<br>3/3 |
| INA-05 | 인도 17일 |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방콕 | 260만원 (220만) | 22 | 6 | 3 | 7 |
| INA-06 | 인도 22일 |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 320만원 (270만) | | 18<br>25 | | 5<br>19 |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원각사지 성보관리 "속수무책"

## 사적비도 균열···종단·당국 구체적 보존방안 없어
## 전문가, 사찰복원 보호·박물관에 이전등 주장

성보를 보존할 구체적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인가.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훼손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도 성보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종단과 문화재 관리국, 어느 곳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호대책을 강구중" "전국민의 각성 촉구" 등의 의례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성보보호에 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원각사지 10층석탑뿐 아니라 탑골공원내 위치한 보물 3호 원각사 사적비 또한 비면에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비면의 글씨가 희미해 지는 등 급격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각사 사적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고운맘 스님(원각사 복원추진회 지도법사)은 "관리 소홀로 10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사적비 또한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관리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며칠전에 심한 염산냄새가 났다는 공원노인들의 말을 증거로 들며 스님은 "비면의 구불구불한 얼룩은 자연풍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염산 등 약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쌍룡의 발톱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등 인위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24시간 노출돼 있는 성보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교도의 고의파손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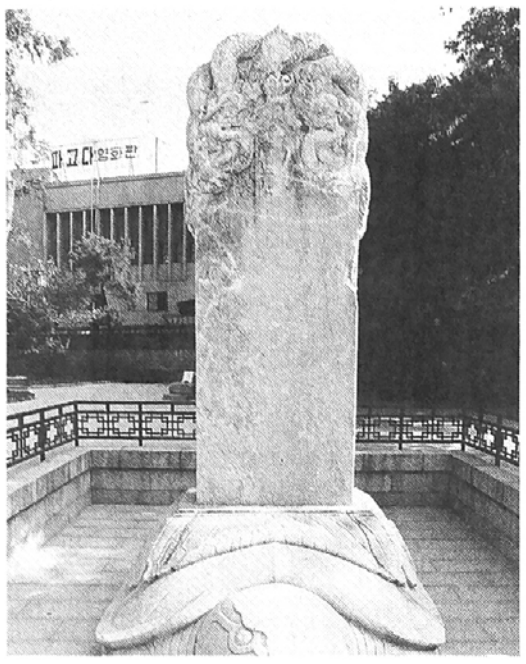
그러나 성보 훼손방지및 보존에 대해 종단은 별 뾰족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조계종 사회부(부장 시현)는 "지금 당장은 뚜렷한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새종단 집행부에서 문화 사회부가 새로 설립되면 문화재 전문위원 위촉 등 성보 보존의 중장기 대책을 세워 나갈것" 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즉 대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일이외에 별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관리국 역시 최근 "원각사 10층석탑이 노천에서 5백여년간 보존해 온 관계로 석재표면의 균열 박리 박탁 등의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나, 탑의 구조상 위험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석재 표면의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한·일간의 석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기술개발 추진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장·단기 보호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전문가들은 공원이라는 노천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계속 방치되는 한 원각사지 석탑과 사적비의 훼손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공원내 원각사를 복원 불교에서 관리 보존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난 92년 10층석탑에 대한 정밀실측 보고서가 만들어진 만큼 모형탑을 세우고 성보는 박물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장충식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은 "탑골공원내 석탑이 위치한 부분이라도 땅을 불하받아 원각사를 복원해 종단에서 24시간 내내 관리해야 할것"이라고 종단에서 관리를 맡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지난 1일 성명을 발표 "국보및 보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불교계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 남산불상, 감은사지 석탑등 노상에 방치돼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보문화재들이 이교도의 무지비한 훼불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관리에 책임을 져야할 관리당국과 종단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이 이번 원각사 10층석탑과 사적비 보존문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원각사 사적비 역시 비면에 심한 균열을 보이는 등 방치돼 있어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보고 목상얼굴 찾았다

### 사후 1150년만에 ··· 일본 삼정사서



신라시대 동북아 해상 무역의 왕자였으며 법화행자로 알려진 장보고 (?~846)의 모습이 목상(木像)으로 사후 1천1백50년만에 밝혀졌다.

장보고의 목상은 일본 경도 삼정사(三井寺)내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그의 생존시 일본 승려 엔닌(圓仁)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찰에서는 장보고의 목상을 해상안전과 풍어를 지켜 주는 바다신으로 추앙해 왔음도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방한한 일본 국보 수리의 최고 권위자인 다카하시 준부씨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이번 공개와 관련 "서해에서 풍랑을 만난 엔닌스님이 장보고가 세운 산동성 법화원에서 1년2개월간 보살핌을 받다가 무사히 귀국한 뒤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삼정사에 세워 모셔왔던 장보고상"이라며 "일본 국보 수리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풍어 안전 관장하는 바다신 숭배

이 목상은 장보고 생존당시 그와 접촉했던 승려가 제작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국내에 전해지는 장보고의 영정은 역사적 고증이 없이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8세기초 활발했던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 1만여명의 민군으로 청해진을 세운 장보고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 법화원을 청해진, 제주, 산동성등에 세웠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장보고의 목상 공개로 그의 업적과 불교사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의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개혁회의 백서 발간

## "다시는 종단진통 없어야"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석주)는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8개월간에 걸친 개혁과정을 정리하고 개혁불사의 의의 및 성과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마련하는 한편 개혁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오는 15일경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개혁불사 토론회는 집행부 범종추 전승련 비구니 학계 언론계 재가신도 등 각계 대표가 참석 △개혁불사의 법제화의 의의 및 성과 △개혁회의 인사 평가 △종단의 민주적 운영 방안 - 재정 종무행정 사찰관리 포교 교육 등 △차기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등에 관해 토론한다.

한편 개혁회의는 이달 19일경 개혁회의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 각 사암 및 강원 신행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1일

조계종 제 2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당긴 오는 21일 있게 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지난달 31일 제 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오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따라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이 있게되며 입후보 자격은 연령 50세이상 승랍 30년 이상의 법계 2급이상의 비구로서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수행이력서 각1부 사진 반명함판 10장과 함께 종책 및 종책개요(200자원고지 10~15매 분량)를 제출해 교계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 일산·분당등 신도시 포교 비상

## 타종교 비해 사찰 절대 부족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불교의 포교당이 기독교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어 신도시 지역 포교에 비상이 걸렸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사찰은 법등사(주지 해종) 1곳인데 교회는 1백여곳으로 드러났다.

일산신도시 지역에는 현재 조계사와 통도사가 각각 부지 마련에 들어가는등 포교당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가 이미 선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불교는 당분간 뒤처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당 지역의 경우도 사찰은 통도사 제1분원 연화사와 제2분원 장안사 등 15개정도인 반면 교회는 2백여곳에 이르고 있어 역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지역 포교일선에 있는 스님들은 신도시 지역에 대한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종단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국대생 교수 폭행 학생 2명 제적 처분

동국대학교 선학과교수 현각스님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경 불교종립대학인 서울 동국대학교 교내 본관 잔디밭 불상앞에서 현각스님이 문과대 양모군등 술에 취한 7명 학생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었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날 퇴근을 하기위해 불상앞을 지나던 스님이 학생들이 술을 마시며 불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무슨 행동이냐"며 나무라자 학생들이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고.

학교측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교무회의를 열고 양모군등 주동자 2명을 제적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정학을 각각 결정했다.

### 이상번씨 당선
### 대불청 18대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제 18대 중앙회장에 현 중앙부회장 이상번씨가 당선됐다. 〈인터뷰 4면〉

지난달 3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 3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상번 후보는 총 185표중 94표를 획득, 86표를 얻은 진인철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자격 등 불청 제반행정사항을 문제삼은 경남지구측과 이를 이유없다고 주장하는 중앙회측과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총회가 두시간여 지연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 법타스님 집유로 풀려나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이지범씨도 함께 출소



◇집유로 지난1일 풀려난 법타스님(오른쪽)과 이지범씨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이하 평불협) 회보 「하나로」 11호(5·6월) 기사내용중 김일성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 해방전쟁부분 게재와 관련, 지난 7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평불협 부회장 법타스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일 출소했다.

한편 이지범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타스님과 함께 풀려났다.

### 중앙종회 후보 96명
### 현소·지하스님무투표 당선

지난달 27일 마감된 조계종 직선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총 96명이고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은 제 14교구 범어사로 2명선출에 7명이 지원 3.5대1의 경쟁율을 보였다. 또한 용주사 월정사 불국사 선운사 봉선사가 각각 2.5대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은해사의 현소·향공스님, 쌍계사 지하·영담스님 고운사의 근일·설송스님 등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일 현재〉

### 봉선·대흥·마곡사 주지 진산식 봉행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진산식이 계속 해 봉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불국사 설조스님 주지 진산식, 지난 2일 백양사 지선스님 주지 진산식에 이어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운경스님과 제22교구 대흥사 천운스님의 주지 진산식이, 그리고 11일 오전 11시에는 마곡사 철응스님의 주지 진산식이 봉행된다.

### 개금복지관 운영 사단법인 불국토

부산지역의 불교복지단체인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정관)가 진구 개금동 개금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됐다.

불국토는 지난달 28일 부산불교계 최초로 시로부터 개금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고 내년 1월중에 개관할 예정이다. 불국토가 위탁 받은 개금사회복지관은 2백평 규모로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및 자원봉사자 간병인 교육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불국토는 지난해 12월에 복지관 위탁운영위원회를 조직, 개금사회복지관의 위탁을 위해 인력양성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 석박사과정 유학생 교류 중앙승가대 경도불대에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은 자매학교인 일본 경도 불교대학과 유학생 교류협정을 체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승가대 학인및 졸업생들의 일본유학이 가능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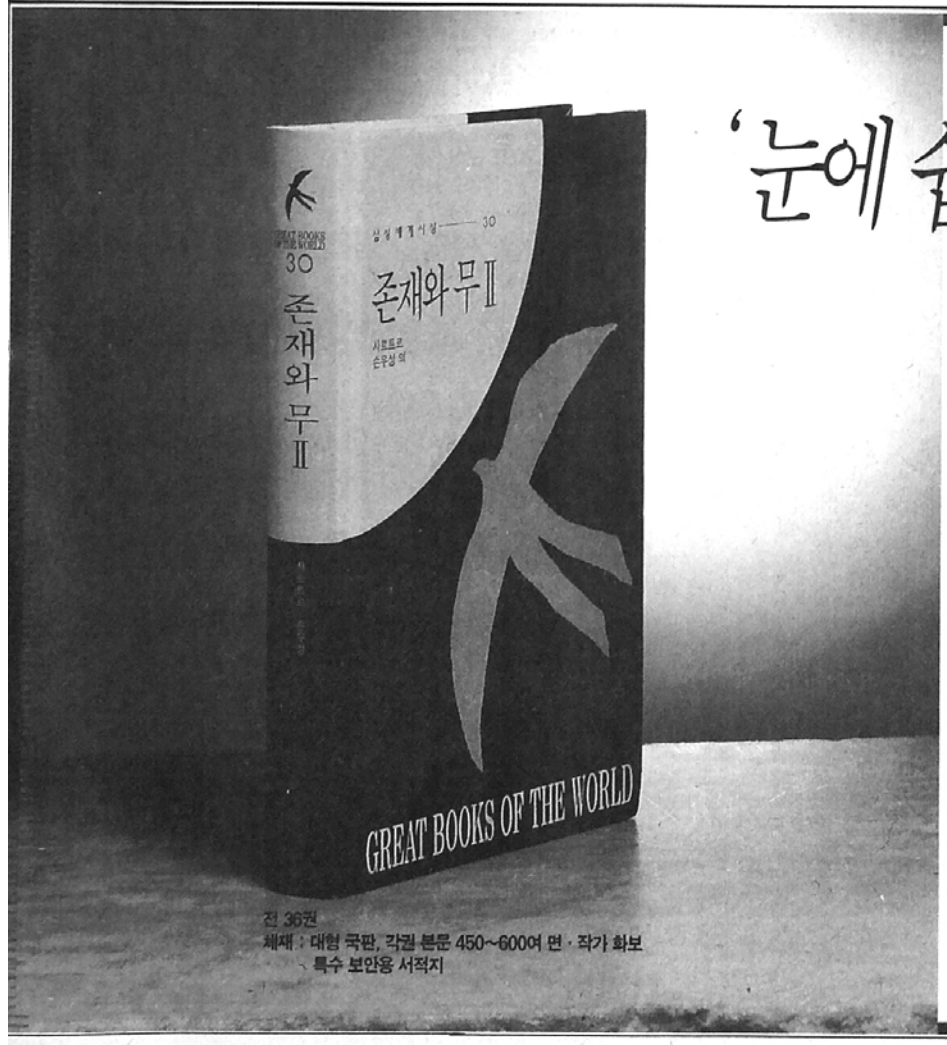
경도대학 유학장학생은 석·박사과정으로 재학기간 학비및 기숙사비가 전액 면제되고 중앙승가대 추천을 받으면 무시험 입학의 특전이 주어진다.

일본 경도불교대학은 80년 전통의 일본 불교계의 대표적 명문대학으로 중앙승가대와는 지난해 10월18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 심볼마크·로고확정 대한불교 진흥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의 심볼마크와 로고가 확정됐다.

'연꽃의 개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있는 심볼마크의 둘레를 싸고 있는 대원은 깨달음의 경지인 일원상을, 연꽃의 여섯 조각은 대승불교 수행법인 육바라밀을, 주색상인 진초록은 생명, 또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 불교진흥의 의지를 집약해 나타내고 있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운명의 책'

삼성출판사
(02)783-8331~4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량제처럼 목만 축이는 그런 책에서 이를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탕 같은 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책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입에 쓴 약처럼 운명의 책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
이다. 삼성에서 기획된 이 세계사상
전집은 문자 그대로 닭의 무리에
섞여 있는 한 마리 학을 가려 엮은
책이다.

李御寧 (전 문화부장관)




삼성세계사상
GREAT BOOKS OF THE WORLD

1 한국의 유학사상 2 논어/중용 사서집주 Ⅰ 3 맹자/대학 사서집주 Ⅱ 4 노자/장자
5 사기열전 6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7 정치학/시학 8 이솝라 사상 9 군주론/리바이어던
10 팡 세 11 한국의 불교사상 12 방법서설/성찰 외 13 등치론/자유론 14 순수이성비판
15 역사철학강의 16 종의 기원 17 전쟁론 18 정신분석입문 19 현대의 신화/아이덴티티
20 시간과 자유의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1 한국의 민속 종교사상 22 자살론/사회분업론 23 사회깡제사
24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25 역사의 연구 Ⅰ 26 역사의 연구 Ⅱ 27 과학과 근대세계/우연과 필연
28 간디 자서전/사만의 불복종 29 존재와 무 Ⅰ 30 존재와 무 Ⅱ 31 한국의 실학사상 32 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 외
33 1차원적 인간/부정 34 슬픈 열대 35 황금가지 Ⅰ 36 황금가지 Ⅱ

전 36권
체재 : 대형 국판, 각권 본문 450~600여 면 · 작가 화보
특수 보안용 서적지

## 여러분 건강칼럼 <4>

### 마 음

### 속마음과 겉마음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안그런 체 한다"는 말이 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이 되겠는데 왜 마음은 하나이면서 겉과 속이 다를까. 시집가는 새댁시가 속으로는 기쁘고 좋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기쁨과는 거리가 먼듯이 다소곳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속으로는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척 하는 것도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의 표현이다.

겉 다르고 속다른 이런 이중성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자신도 겉마음의 뒤에 숨은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마음을 깊이로 본다면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고, 의식에 가깝게 존재하는 무의식을 전의식이란 전문용어로 부른다. 물론 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의식과 전의식을 정의한다.

쉽게 말하면 의식되지 못한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자극에 의해 무의식이 쉽게 의식화로 떠오르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의식수준에서 고통스러운 정서나 기억은 무의식속으로 억압도 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위장하는 속마음이 아니고 자신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이 속마음일 때가 많다.

우리 속담에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세살때의 버릇이 바로 핵심적인 속마음을 이룬다고 믿고 있다. 세살 때 형성된 성격의 핵심적인 양식이 커서도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이런 지배는 감정, 행동, 사고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는다. 마치 양파의 껍질처럼 겉껍이 마음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속마음은 아주 헤아리기가 어렵다.



### 상처입은 속마음이 질병 원인

숨어있는 감정의 양식이 어떤 모습이길래 현재의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이렇다 하는 의문을 해결한다면 그는 적어도 의학적인 개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나의 속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통찰이라고 부르고, 병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표현을 쓴다. 일종의 개달음이다.

불가의 목표가 자신의 진여와의 만남이라면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증상이 무의식적인 핵심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정신질환은 상처입은 속마음 때문에 생긴다.

## 매일 죽는 여자 ③

## 주부신행담

### 부처님! 내몸 어디라도 떼어 저 사람에게 …

*그거였어. 바로그거. 정말 남편은 그날부터 거짓말처럼 나아갔다. 난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아주 당연한 결과를 본것같아 ….*

난 너무 감사하고 그 몽안의 힘겨움이 눈물이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도 못드리고 울기 시작했다. 남편의 방산도 와그르 무너져 녹아내렸으면 했다. 그러나 집에 오니 좋은 아이니 어머님도 잡수시라고 반찬이 나눠드리는 것이었다. 결국 남편의 마음에선 한 줄기 시내도 흐르지 못함을 알았다. 남편은 어느덧 목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게 되었다. 촬영을 하여보니 뼈 디스크라고 했다.

'이럴수가 …'

나는 사찰의 잘 아는 법사님께 전화로 자초지종을 여쭈었더니, 우선 잠자리부터 남편한테로 옮기고 열심히 관하라고 하셨다.

아버님 장례 후 억지로 견뎌온 남편은 지친 몸을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지 몸져 눕기 일쑤였다.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워 있는 그의 곁에 가서 살그머니 누웠다. 놀란 그는 나가라고 야단을 쳤지만 '잔소리 않고 얌전히 잘께요'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인공, 주인공' 엄마를 지났을까?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몇 개월 동안 베개에 머리를 대지 못하던 그가 반듯히 누워 곤히 자고 있었다. 이 희한한 그의 단잠이 언제 깰지 몰라 새벽까지 숨을 죽이고 큰 스님, 주인공께 감사했다.

"얼나! 잠을 잤어요. 집사람이 곁에 와있었는데 새벽까지 잠을 잤어요." 그의 흥분된 소리에 깜짝 놀라보니 나도 잠간 잠을 잤나보다.

그날부터 다시 우린 한방을 쓰고 신기하게도 그는 4~5시간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나 어깨에서 시작한 통증이 이제는 손가락 끝까지 와서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의사는 손을 들고, 큰 병원 자기의 선배님한테 소견서를 써주면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디스크도 수술을 하라고 권했다. 난 절대로 수술만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병가를 내고 적지않은 검사비와 소견서를 가지고 혼자서 병원을 가고 난 출근을 했다. 그전엔 작은 약방엘 가거나 병원엘 가면 조바심이 나서 따라 다니고 겁먹고 애를 태우던 나였다.

"부처님, 내 몸 어디라도 떼어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먼지 다니던 선원의 법당에 엎드려 울다가 잠하다가 정신이 흔미해질 때까지 기도 했던 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 사람과 내 자성본래불,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면 아무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큰 언덕을 넘고말 것이다. 그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하니 밝은 모습으로 남편이 반겨주었다. 의아해하는 나에게 남편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수십 가지의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잘생긴 아들과 어머니를 만난 일.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 잘하다가 머리가 이상해져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 결과를 보러 왔다고, 그러기까지 일년이 걸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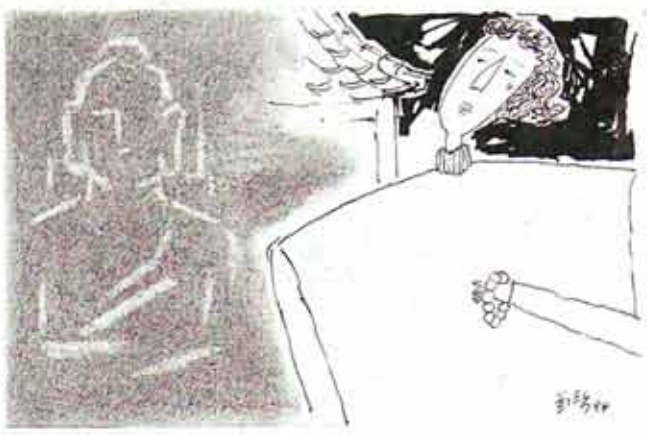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도 이러다간 병원 다니다 죽겠구나. 이게! 이게 아닌데', 가슴속이 반적했다는 것이다.

그 할라 남편의 방산은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천지를 뒤덮는 홍수로 변했으리라.

그 즉시 검사용지와 소견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먼저 다니던 병원으로 달려가 놀란 의사에게

"다 낳았으니 화상 치료나 해 주시오." 그랬단다.

집에 와선 빨래를 바르고 문지르던 그 소중한(?)와, 파스도 모두 버렸단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그는 상기돼서

"그거였어. 바로 그거. 주인공! 검사비는 스님께 올려야지."

정말 남편은 그날부터 거짓말처럼 나아갔다. 팔도, 어깨도 목디스크도. 잠도 잘자고 잘 먹었다. 난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아주 당연한 결과, 예견한 모습을 본 것 같아 흐뭇할 뿐. 그는 이제 분명히 알할 수 있을거다.

"바로 그거야!"

감작스런 아버님의 별세와 남편의 갑작스러운 투병이 끝난 지금 난 정말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연 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영어로 배우는 경전 옥 야 경 ③

Whoso is pitiless, corrupt in mind,
Neglecting husband and unamiable,
Inflamed by other men, a prostitute,
On murder bent-
Let her be called: a slayer and a wife!

마음에 자비가 없고 부정하며
남편을 무시하고 몽명스러우며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 남편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
그를 일러 살인자같은 아내라 한다.

Whoso would rob her husband of his gains-
Though little be the profit that he makes,
Whether by craftsmanship, or from his trade,
Or by the plough-
Let her be called: a robber and a wife!

전문기술로써, 장사로, 또는 농사로 벌었거나
아무리 하찮은 수입일지라도
남편이 벌어온 것을 빼앗으려 하는 이
그를 일러 도둑같은 아내라 한다.

The slothful glutton, bent on doing nothing,
A gossip and a shrew with strident voice,
Who brings to low account of her husband's zeal
And industry-
Let her be called: a mistress and a wife!

게으르게 먹기만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거슬리는 목소리로 험담이나 잔소리를 하고
남편의 열의와 근면을 깍아 내리는 이
그를 일러 여주인같은 아내라 한다.

'whoso whoever 의 고어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이다.


"편안함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랜드 환타지아로 오십시오.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나는
환타지아의 꿈이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설레임으로 다가와
포근하게 스며드는
그랜드 환타지아의 꿈.
행복한 내일을 여는 침대
그랜드 침대——









그랜드 침대, 왜 좋은가?

■ 침대 전문 회사 20여년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서울지역
홍제동 735-5572
모래내 373-2088
봉천동 889-8647
봉천동 888-5945
능 동 468-0246
도곡동 567-4331
신목동 691-2195
등촌동 644-2127
응암동 384-4800
화곡동 692-7038
화곡동 690-8571
독산동 855-4148
구로구 862-6066
시흥동 803-0027
답십리 244-0937
신답리동 862-0542
신림동 873-2180
봉가좌동 304-9989
망원동 334-0752
청량리 966-5608
미아리 984-2341
미아리 927-0072
창 동 995-5671
삼양동 986-4369
수유리 999-1761
신길동 849-3495
대림동 849-9399
면목동 432-4004
신당동 234-5755
신 촌 334-8515
공항동 662-1991
포이동동 3461-5606
명일 474-2745
경기지역
광 명 688-8806
송우리 541-1452
마 석 593-3223
수 원 33-8021
남양 734-2820
양포 52-9520
곡 49-8979
정부 56-6582
제 971-5252
탄 43-5109
산 62-9922
천 63-6516
성의 73-6689
안군 284-0222
능의 인천지역
벽 송 석남동 573-7472
오 풍 석남동동 578-8338
덕천 계산동 541-8833
인 35-7545
천 502-5764
산 63-5981
산남 975-2630
793-3467
평 503-9803
동 764-2030
안 420-0281
안 862-8080
안 873-1049
암 865-1818
동 424-4883
구월동동 427-8914
간석동동 427-9857
간석 425-7633
연수동 814-4164
전남지역
광 주 366-3066
광순 주 369-2491
목 천 755-0156
해 포 74-5671
여 남 536-3313
수 63-5904
전북지역
이 리 858-1231
전 주 83-3223
군 산 42-5555
정 535-2803
부 안 81-1234
실 원 55-2555
강원영업소
속 초 635-5246
충청영업소
대 전 631-7287
대구경북영업소
칠 곡 312-3904
부산영남영업소
김 해 34-9281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본사 : 경기도 고양시 행동동 267-18
•TEL: (02) 308-1818/9, 303-7376, 372-7941
품질보증